



NABO 경제 동향

NABO Economic Trends

CONTENTS

경제 동향

기술경제 동향 | 수소에너지 가치사슬과 탄소중립

경제 현안 |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 「NABO 경제 동향」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 02-6788-37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경제 동향」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I 지출	
1. 소비	08
2. 투자	10
3. 대외거래	15
4. 소비자물가	18
II 생산·고용·인구	
1. 생산	22
2. 고용	34
3. 인구	38
III 금융·자산	
1. 국내 금융시장	42
2. 에너지 및 원자재	45
3. 부동산	51
IV 해외경제	
1. 미국	56
2. 중국	59
3. 유로지역	61
4. 일본	63
5. 글로벌 금융시장	65
V 기술경제 동향	
수소에너지 가치사슬과 탄소중립	70
VI 경제 현안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78

경제동향 종합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부진이 지속되며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고금리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와 건설기성이 감소하고 서비스생산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여 전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23.12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감소세가 지속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0월)-0.8 → (11월)0.9 → (12월)-0.8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10월)-3.1 → (11월)0.5 → (12월)-0.7

'23.1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공사의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10월)0.1 → (11월)-3.3 → (12월)-2.7

'24.1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24.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한 546.9억달러, 4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1월)7.4 → (12월)5.0 → ('24.1월)18.0
- '24.1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543.9억달러, 11개월 연속 감소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11월)-11.6 → (12월)-9.7 → ('24.1월)-7.8

'24.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3.3 → (12월)3.2 → ('24.1월)2.8

'23.12월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23.12월 「제조업 생산」은 수출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철강, 석유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6.7%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0월)0.8 → (11월)5.6 → (12월)6.7
- '23.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0.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0월)0.9 → (11월)2.3 → (12월)0.2
- '23.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 전월대비 0.3% 증가

'24.1월 고용은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

- '24.1월 취업자 수는 2,77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0만명 증가하여 2년 11개월째 증가세 유지,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7%를 기록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

- '24.1월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상승
 - 국고채(3년) 금리(%): ('23.11월말)3.58 → (12월말)3.15 → ('24.1월말)3.26
- '24.1월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 ('23.11월말)1,289 → (12월말)1,289 → ('24.1월말)1,33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3Q	4Q	연간	2Q	3Q	4Q	11월	12월	1월
전산업생산	4.6	5.5 (0.4)	1.9 (-1.4)	0.7	-0.5 (0.3)	0.8 (1.1)	1.6 (0.2)	2.8 (0.8)	1.1 (0.3)	-
제조업생산	1.4	1.4 (-2.8)	-6.7 (-6.4)	-3.9	-7.8 (3.3)	-2.1 (1.8)	4.4 (1.6)	5.6 (3.6)	6.7 (0.6)	-
서비스업생산	6.7	8.5 (1.7)	5.8 (0.2)	2.9	2.3 (-0.3)	1.9 (0.7)	1.1 (-0.3)	2.3 (0.0)	0.2 (0.3)	-
소매판매액	-0.3	-0.9 (0.6)	-2.3 (-1.4)	-1.4	-0.2 (-0.3)	-2.8 (-2.6)	-2.4 (-0.5)	-0.4 (0.9)	-2.2 (-0.8)	-
설비투자지수	3.3	7.5 (8.6)	9.6 (-0.2)	-5.5	-1.2 (1.3)	-10.6 (-3.5)	-9.2 (3.1)	-11.9 (-2.5)	-5.9 (5.5)	-
건설기성액	2.7	3.5 (1.0)	6.4 (4.9)	7.7	8.9 (-0.8)	10.5 (1.0)	1.3 (-2.0)	2.2 (-3.3)	-1.2 (-2.7)	-
수출(통관)	6.1	5.8	-10.0	-7.5	-12.0	-9.7	5.8	7.5	5.0	18.0
수입(통관)	18.9	22.6	3.1	-12.1	-13.2	-21.6	-10.7	-11.6	-10.8	-7.8
경상수지(억달러)	258.3	-3.9	17.5	354.9	71.1	156.0	187.4	38.9	74.1	-
소비자물가	5.1	5.4	5.9	3.6	3.3	3.1	3.4	3.3	3.2	2.8
취업자수 증감(천명)	816	780	604	327	346	263	303	277	285	380
실업률	-0.8	-0.3	-0.3	-0.2	-0.3	-0.2	0.0	0.0	0.3	0.1
원/달러환율	1,292	1,435	1,267	1,305	1,313	1,345	1,289	1,289	1,289	1,331
국고채금리(3년)	3.20	4.19	3.72	3.57	3.66	3.88	3.15	3.58	3.15	3.26

주: 1.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지출

'23.12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감소세가 지속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0월)-0.8 → (11월)0.9 → (12월)-0.8
- 내구재(전월대비, %): ('23.10월)1.0 → (11월)2.6 → (12월)-1.2
- 준내구재(전월대비, %): ('23.10월)4.3 → (11월)-0.6 → (12월)-0.3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10월)-3.1 → (11월)0.5 → (12월)-0.7

'23.12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줄어들었으나 기계류에서 늘어나며 전월대비 증가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10월)-3.8 → (11월)-2.5 → (12월)5.5

'23.1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공사의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10월)0.1 → (11월)-3.3 → (12월)-2.7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3.10월)2.3 → (11월)-1.9 → (12월)-5.6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3.10월)-6.2 → (11월)-7.5 → (12월)6.8

'24.1월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은 다소 축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1월)7.4 → (12월)5.0 → ('24.1월)18.0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11월)-11.6 → (12월)-9.7 → ('24.1월)-7.8
- 무역수지(억달러): ('23.11월)37.0 → (12월)16.3 → ('24.1월)3.0

'24.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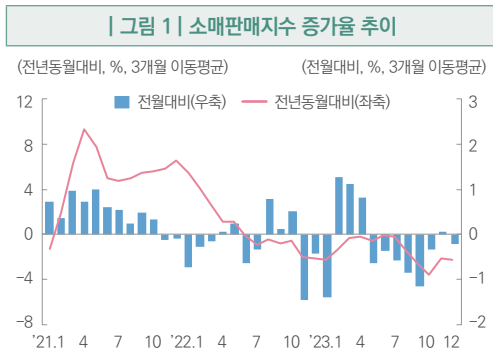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3.3 → (12월)3.2 → ('24.1월)2.8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3.8 → (12월)3.7 → ('24.1월)3.1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2.8 → (12월)2.8 → ('24.1월)2.6

1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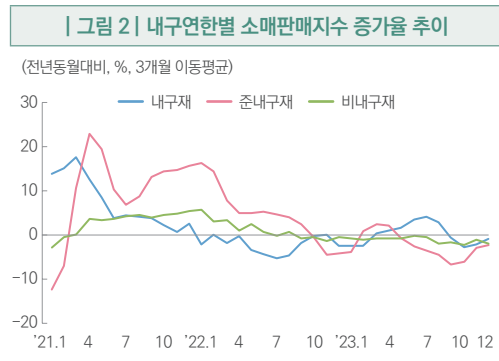
'23.12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부진한 모습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의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내구재와 비내구재도 감소 전환하며 전월대비 0.8% 감소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0월)-0.8 → (11월)0.9 → (12월)-0.8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0월)-0.6 → (11월)-0.2 → (12월)-0.7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주요 품목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월대비 1.2% 감소

- 내구재(전월대비, %): ('23.10월)1.0 → (11월)2.6 → (12월)-1.2
- 승용차(전월대비, %): ('23.10월)-1.8 → (11월)10.2 → (12월)-1.6
- 가전제품(전월대비, %): ('23.10월)-2.8 → (11월)5.2 → (12월)-2.1
- 통신기기 및 컴퓨터(전월대비, %): ('23.10월)12.0 → (11월)-12.0 → (12월)-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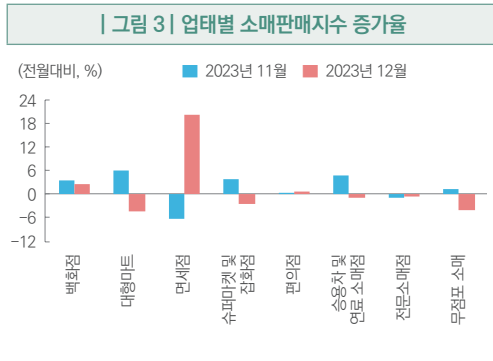
■ 준내구재는 의복 등이 증가하였으나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3% 감소

- 준내구재(전월대비, %): ('23.10월)4.3 → (11월)-0.6 → (12월)-0.3
- 의복(전월대비, %): ('23.10월)3.6 → (11월)-1.1 → (12월)1.7
- 오락·취미·경기용품(전월대비, %): ('23.10월)6.1 → (11월)1.6 → (12월)-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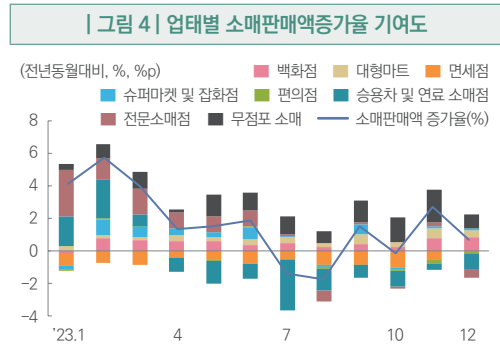
■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7% 감소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10월)-3.1 → (11월)0.5 → (12월)-0.7
- 음식료품(전월대비, %): ('23.10월)-6.5 → (11월)1.0 → (12월)-2.8

- 소매업태별로는 면세점(20.0%)이 전월대비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주요 업태별 판매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 전환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짐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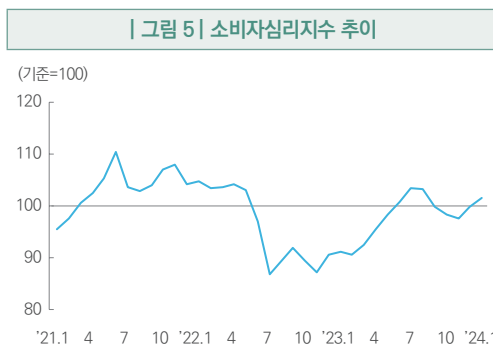
주: 소매판매액증가율은 경상금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고 각 업태별은 기여도(%p)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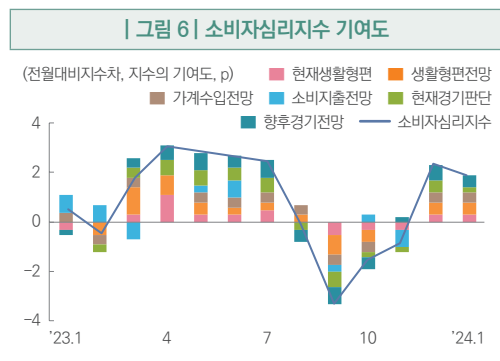
'24.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9p 상승한 101.6을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향후경기전망(81, +4p) 및 생활형편전망(94, +2p) 등이 개선 되었으나 소비지출전망은 '23.11월 수준(111)을 유지

• 소비자심리지수: ('23.11월)97.3 → (12월)99.7 → ('24.1월)101.6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지수차(p)이고 각 구성 항목은 지수의 기여도(p)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 투자

가.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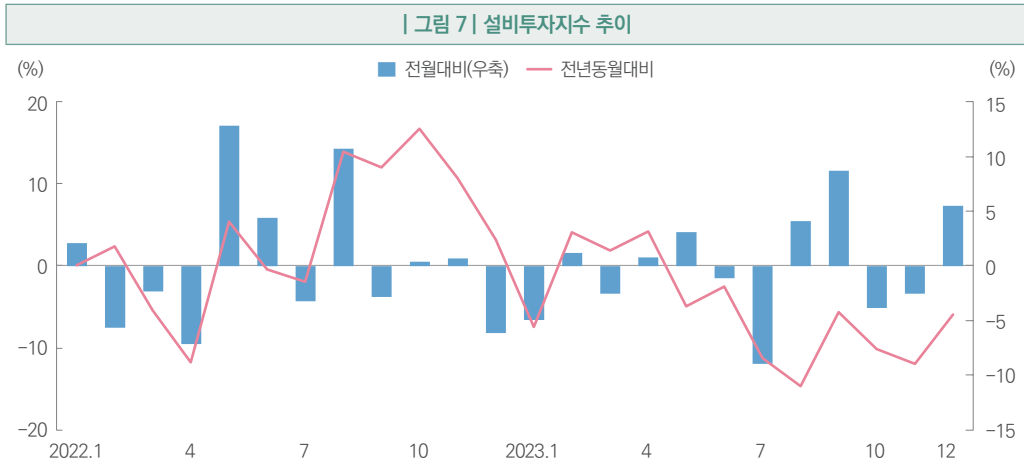
'23.12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증가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2%)에서 줄어들었으나 기계류(8.9%)에서 늘어나며 전월대비 5.5% 증가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10월)-3.8 → (11월)-2.5 → (12월)5.5
- 기계류(전월대비, %): ('23.10월)-4.8 → (11월)-1.6 → (12월)8.9
- 운송장비(전월대비, %): ('23.10월)-1.2 → (11월)-4.8 → (12월)-3.2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7.1%)와 운송장비(-2.2%)에서 모두 줄어들며 5.9% 감소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3.10월)-10.1 → (11월)-11.9 → (12월)-5.9
-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3.10월)-12.3 → (11월)-15.1 → (12월)-7.1
-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3.10월)-4.4 → (11월)-2.8 → (12월)-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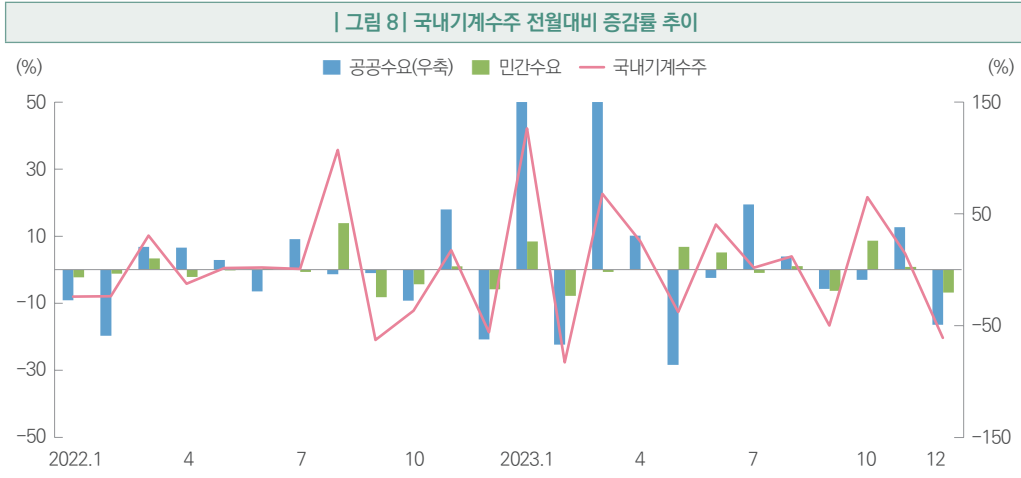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23.12월 중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액」은 감소, 「기계류 내수출하」는 증가

■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20.4%)과 공공부문(-49.1%)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22.7% 감소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3.10월)23.1 → (11월)4.7 → (12월)-22.7
- 공공부문(전월대비, %): ('23.10월)-9.0 → (11월)38.0 → (12월)-49.1
- 민간부문(전월대비, %): ('23.10월)25.9 → (11월)2.6 → (12월)-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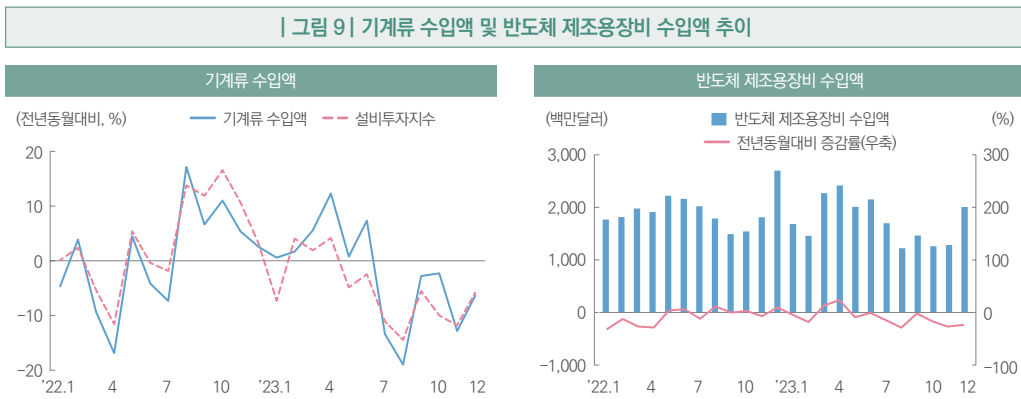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2.9% 증가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3.10월)-5.5 → (11월)1.9 → (12월)2.9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25.6%), 자동차 부품(11.7%) 등에서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6.4% 감소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3.10월)-2.3 → (11월)-12.9 → (12월)-6.4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자료: 무역협회

I. 지출

II. 생산·고용·인구

III. 금융·재원

IV. 해외경제 동향

V. 기술경제 동향

VI. 경제 원안

나.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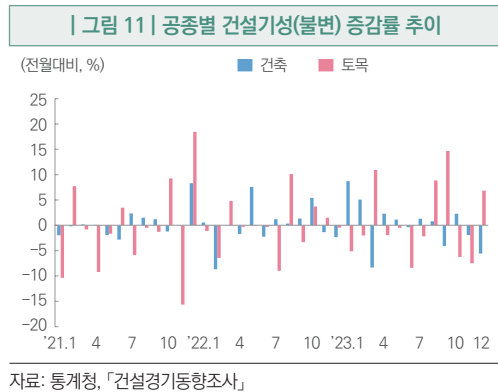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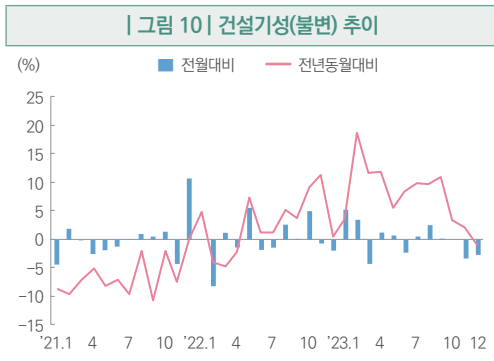
'23.1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

- 건설기성(불변)은 연말 SOC 집행 등으로 토목(6.8%) 공사가 증가하였으나 건축(-5.6%) 공사 실적이 감소하며 전월대비 2.7% 감소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10월)0.1 → (11월)-3.3 → (12월)-2.7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3.10월)2.3 → (11월)-1.9 → (12월)-5.6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3.10월)-6.2 → (11월)-7.5 → (12월)6.8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재작년 말부터 나타난 건축 부문 수주 감소의 영향이 반영되며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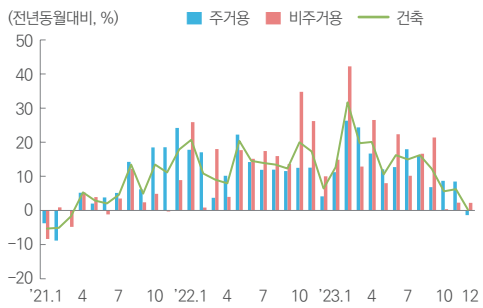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3.10월)3.5 → (11월)2.2 → (12월)-1.2



'23.12월 「건설기성(경상)」은 토목 공사가 늘었으나 건축 공사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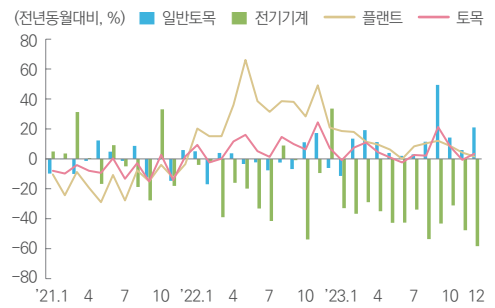
- 건설기성(경상)은 건축 공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며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건설(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0월)6.1 → (11월)4.5 → (12월)1.1
- 건축부문(경상)은 주택착공 감소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축(-1.3%) 공사 실적이 줄며 전년동월대비 증가폭(6.2% → 0.1%)이 축소됨.**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0월)5.5 → (11월)6.2 → (12월)0.1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0월)8.7 → (11월)8.5 → (12월)-1.3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0월)0.4 → (11월)2.3 → (12월)2.2
- 토목부문(경상)은 일반토목(21.0%) 공사실적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0월)8.2 → (11월)-0.8 → (12월)3.3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0월)14.2 → (11월)5.8 → (12월)21.0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0월)-31.1 → (11월)-47.6 → (12월)-58.2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0월)8.4 → (11월)3.9 → (12월)1.2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은 공공기관의 기여가 개선된 가운데 민간기관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
 -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0월)-9.7 → (11월)-9.6 → (12월)0.6
 -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0월)8.7 → (11월)7.6 → (12월)1.3

| 그림 12 |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3 |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1) 건설기성액의 세부항목에 대한 불변금액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 공정에 대한 동향은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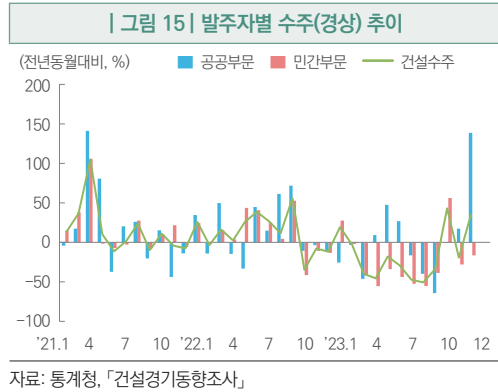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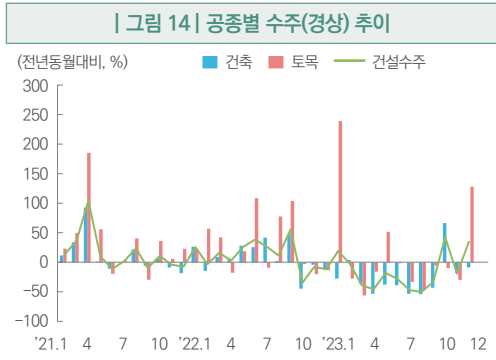
'23.12월 「건설수주(경상)」은 토목수주의 개선으로 증가

■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34.9% 증가

- 건축수주는 주택(-12.1%)이 부진한 가운데 관공서(-33.2%) 등의 수주가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8.4% 감소
- 토목수주는 도로 및 교량(116.3%), 철도 및 궤도(625.2%) 수주가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27.9% 증가
-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3.10월)43.3 → (11월)-20.3 → (12월)34.9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의 수주가 개선되었으나 민간부문의 수주는 감소

- 공공부문 수주가 전년동월대비 138.4%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 수주는 16.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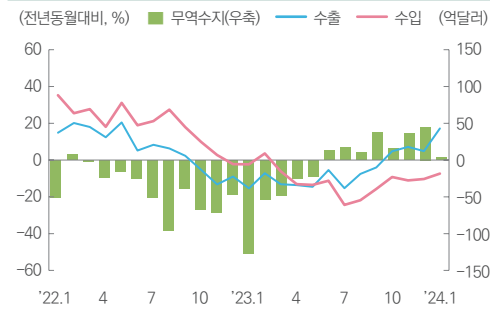
3 대외거래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24.1월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은 다소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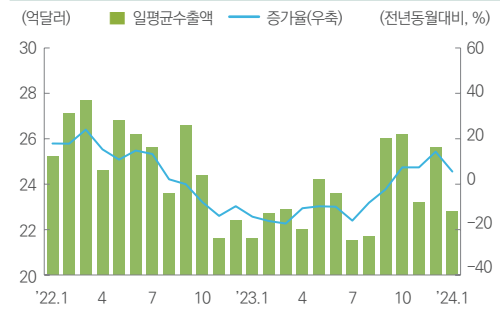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한 546.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1월)7.4 → (12월)5.0 → ('24.1월)18.0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3.11월)23.2 → (12월)25.6 → ('24.1월)22.8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543.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감소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11월)-11.6 → (12월)-9.7 → ('24.1월)-7.8
- 무역수지는 3.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흑자
 - 무역수지(억달러): ('23.11월)37.0 → (12월)16.3 → ('24.1월)3.0

| 그림 16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 그림 17 | 일평균 수출액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I. 지출

II. 생산·공용·인구

III. 금융·자산

IV. 해외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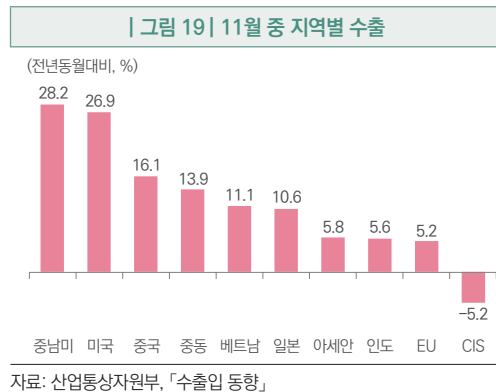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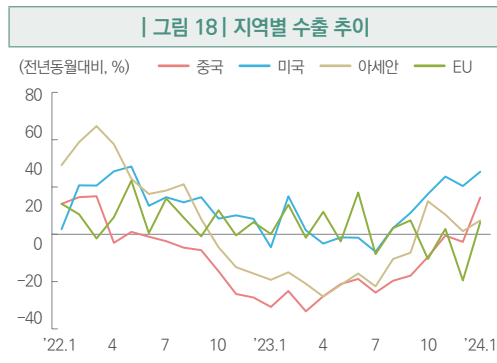
V. 기술경제 동향

VI. 경제 현안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

■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미국, 일본,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도 확대

- 대중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0.3 → (11월)-3.0 → ('24.1월)16.1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24.8 → (11월)20.7 → ('24.1월)26.9
- 대일본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11.1 → (11월)2.5 → ('24.1월)10.6
- 대아세안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8.3 → (11월)1.2 → ('24.1월)5.8
- 대EU(27)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2.3 → (11월)-20.0 → ('24.1월)5.2
- 대중동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7.3 → (11월)-0.9 → ('24.1월)13.9
- 대중남미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7.7 → (11월)-6.3 → ('24.1월)28.2
- 대베트남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5.8 → (11월)-2.6 → ('24.1월)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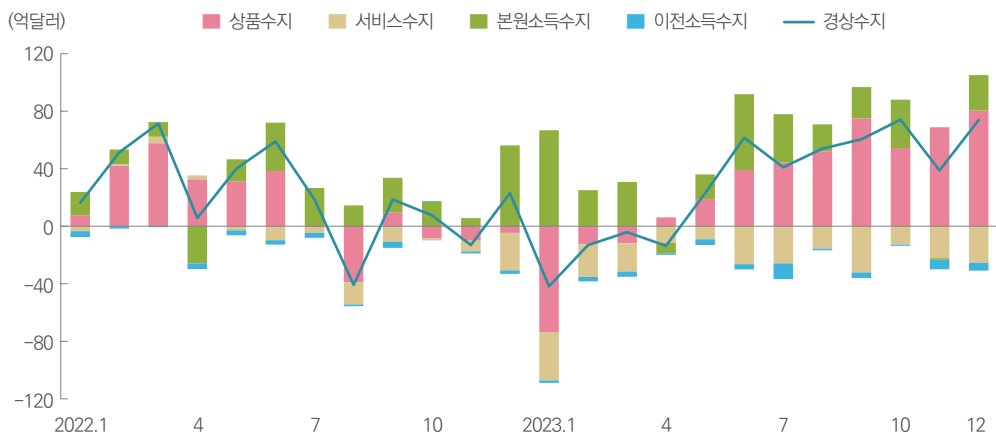


나. 경상수지

'23.12월 「경상수지」는 74.1억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 기록

- 경상수지는 74.1억달러로 전년동월 23.1억달러보다 51.0억달러 증가
 - 경상수지(억달러): ('23.10월)74.4 → (11월)38.9 → (12월)74.1
- 상품수지는 80.4억달러로 전년동월 -4.6억달러보다 85.0억달러 증가
 - 상품수지(억달러): ('23.10월)54.3 → (11월)68.8 → (12월)80.4
 - 일반상품수지(억달러): ('23.10월)38.2 → (11월)53.2 → (12월)62.4
 - 중계무역순수출(억달러): ('23.10월)16.2 → (11월)15.9 → (12월)18.7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등으로 25.4억달러 적자 기록
 - 서비스수지(억달러): ('23.10월)-12.8 → (11월)-22.1 → (12월)-25.4
 - 운송수지(억달러): ('23.10월)-3.2 → (11월)-3.6 → (12월)-3.3
 - 여행수지(억달러): ('23.10월)-6.0 → (11월)-12.8 → (12월)-13.4
-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등으로 24.6억달러 흑자 기록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3.10월)33.6 → (11월)-1.2 → (12월)24.6
 - 투자소득수지(억달러): ('23.10월)33.8 → (11월)-0.1 → (12월)26.4

| 그림 20 |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I. 지출

II. 생산·고용·인구

III. 금융·자산

IV. 해외경제 동향

V. 기술경제 동향

VI. 경제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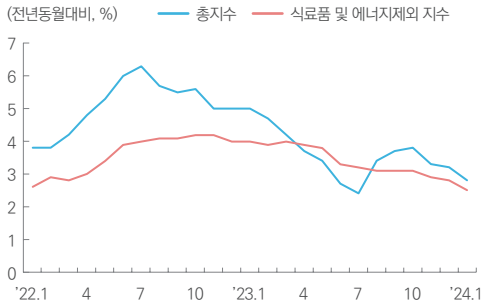
4 소비자물가

'24.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는 상품(3.1%), 서비스(2.6%)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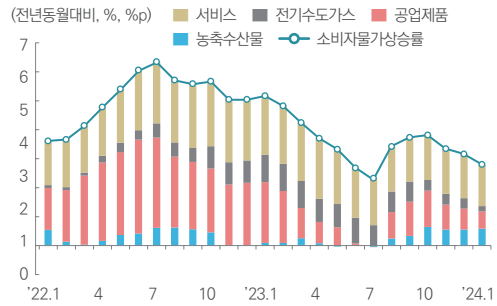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3.3 → (12월)3.2 → ('24.1월)2.8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3.8 → (12월)3.7 → ('24.1월)3.1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2.8 → (12월)2.8 → ('24.1월)2.6
- 근원물가상승률²⁾(전년동월대비, %): ('23.11월)2.9 → (12월)2.8 → ('24.1월)2.5

| 그림 21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그림 22 |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15.4%) 품목을 중심으로 8.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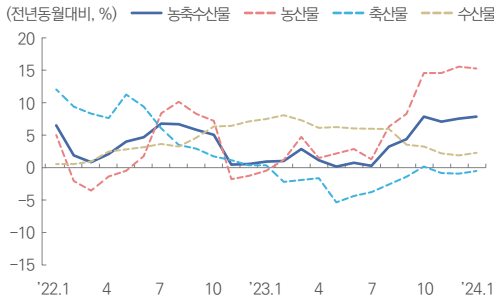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7.2 → (12월)7.7 → ('24.1월)8.0
-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14.7 → (12월)15.7 → ('24.1월)15.4
-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0.9 → (12월)-1.0 → ('24.1월)-0.6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2.1 → (12월)1.8 → ('24.1월)2.2

■ 공업제품 물가는 석유류(-5.0%)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가공식품(3.2%)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8% 상승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2.5 → (12월)2.1 → ('24.1월)1.8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5.1 → (12월)4.2 → ('24.1월)3.2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4.7 → (12월)-5.2 → ('24.1월)-5.0
- 국제유가(3개유종평균, 달러/배럴): ('23.11월)83.5 → (12월)77.2 → ('24.1월)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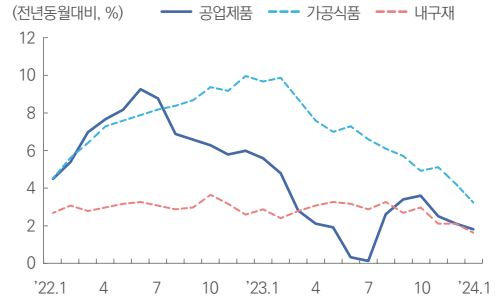
2) 근원물가상승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 그림 23 |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그림 24 |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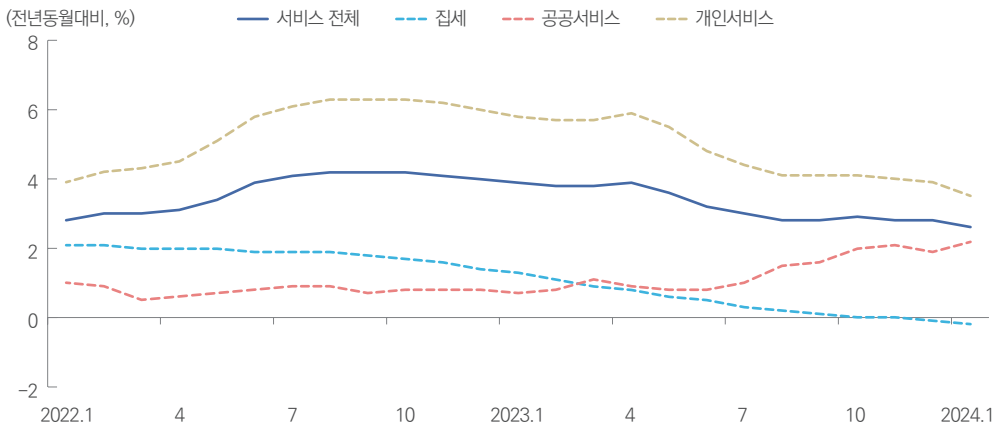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2.6% 상승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2.8 → (12월)2.8 → ('24.1월)2.6
- 집세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0.0 → (12월)-0.1 → ('24.1월)-0.2
-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2.1 → (12월)1.9 → ('24.1월)2.2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4.0 → (12월)3.9 → ('24.1월)3.5

| 그림 25 |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I. 지출

II. 생산·고용·인구

III. 금융·자산

IV. 해외경제 동향

V. 기술경제 동향

VI. 경제 원안

생산·고용·인구

'23.12월 「생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 전월대비 0.3%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0월)0.9 → (11월)2.8 → (12월)1.1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10월)-1.8 → (11월)0.8 → (12월)0.3
- 「제조업 생산」은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섬유, 무선통신기기 등은 줄었으나 반도체, 가전, 철강, 석유 등의 생산은 늘어 전년동월대비 6.7%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0월)0.8 → (11월)5.6 → (12월)6.7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0월)0.9 → (11월)2.3 → (12월)0.2

'24.1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10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고, 대미국 수출도 역대 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7.6 → (11월)7.6 → (12월)8.7 → ('24.1월)21.8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3.10월)2.3 → (11월)0.3 → (12월)5.3 → ('24.1월)-6.0
- 품목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무선통신기기(-14.1%)만 수출이 감소하고, 조선(76.0%), 반도체(56.2%), 자동차(21.2%), 일반기계(14.5%), 석유(11.8%) 등은 증가

'23.12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는 하락하고 선행지수는 상승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10월)-0.2 → (11월)-0.1 → (12월)-0.3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10월)0.3 → (11월)0.2 → (12월)0.1

'24.1월 「고용」은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

- '24.1월 취업자 수는 2,77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0만명 증가하여 2년 11개월째 증가세 유지,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7%를 기록
 - 최근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전산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
 -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끄는 가운데, 15~29세 및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

'24.1월 「주민등록인구」는 인구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1만 6천명(-0.2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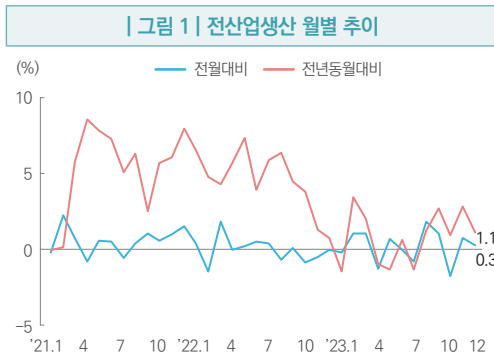
-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49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
- '23.11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감소세 지속

1 ▶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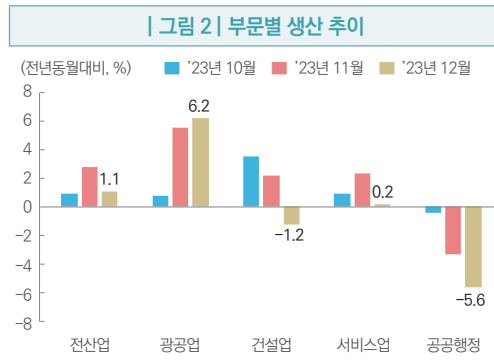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23.12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공공행정은 줄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의 생산이 늘며 1.1%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이 늘었으나 건설업이 큰 폭으로 줄어 0.3%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0월)0.9 → (11월)2.8 → (12월)1.1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10월)-1.8 → (11월)0.8 → (12월)0.3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건설업(-1.2%), 공공행정(-5.6%)의 생산은 감소, 광공업(6.2%), 서비스업(0.2%)은 증가, 전월대비로는 건설업(-2.7%)만 생산이 감소, 광공업(0.6%), 서비스업(0.3%), 공공행정(1.0%) 등은 증가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23.12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컴퓨터·주변장치(-33.3%), 일반기계(-7.0%), 섬유(-4.9%), 무선통신기기(-1.8%), 자동차(-0.8%), 화학(-0.3%) 등은 줄었으나, 반도체(53.3%), 가전(16.2%), 철강(11.8%), 석유(4.9%) 등의 생산은 늘어 6.7%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0월)0.8 → (11월)5.6 → (12월)6.7
- 전월대비: 반도체(8.5%), 일반기계(6.1%), 자동차(4.7%), 가전(4.2%), 철강(1.5%)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무선통신기기(-34.7%), 조선(-8.9%), 화학(-5.7%), 컴퓨터·주변장치(-5.4%), 석유(-3.6%) 등의 생산이 줄어 0.6% 증가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3.10월)-3.9 → (11월)3.6 → (12월)0.6

| 표 1 |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2			2023			전월대비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제조업(원지수)	106.4	107.1	107.8	107.3	113.1	115.0	0.6
제조업	-2.8	-5.7	-11.1	0.8	5.6	6.7	
반도체	-11.1	-22.6	-25.1	13.0	42.8	53.3	8.5
자동차	20.3	21.4	11.4	2.5	-2.4	-0.8	4.7
화학	-16.5	-17.8	-25.1	-0.5	3.2	-0.3	-5.7
일반기계	6.0	12.3	-0.7	-15.2	-14.2	-7.0	6.1
철강	-25.1	-25.9	-19.0	26.7	18.0	11.8	1.5
석유	-0.4	0.4	-6.2	5.5	3.4	4.9	-3.6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23.12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업(-3.7%), 숙박·음식점업(-2.2%), 금융·보험업(-3.0%), 부동산업(-1.8%) 등은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업(9.7%),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6%), 정보통신업(2.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5%), 교육서비스업(0.7%) 등이 늘어 0.2% 증가하며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증가율은 축소(-2.1%p)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0월)0.9 → (11월)2.3 → (12월)0.2

- 전월대비: 도소매업(0.0%)이 정체되는 가운데 부동산업(-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4%), 교육서비스업(-0.9%), 정보통신업(-0.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0.3%), 숙박·음식점업(-0.3%) 등은 줄었으나, 금융·보험업(4.9%), 운수창고업(2.5%) 등은 늘어 0.3%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3.10월)-0.8 → (11월)0.0 → (12월)0.3

| 표 2 |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2			2023			전월대비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서비스업(원지수)	113.5	113.4	126.8	114.5	116.0	127.1	0.3
서비스업	7.1	3.9	6.6	0.9	2.3	0.2	
도매 및 소매	2.1	0.1	1.2	-3.6	-1.5	-3.7	0.0
숙박 및 음식점	12.7	3.9	12.8	-5.3	-3.4	-2.2	-0.3
금융 및 보험	11.4	6.5	19.3	2.1	3.9	-3.0	4.9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24.1월 중 주요 11대 산업³⁾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감소

- 전년동월대비: 무선통신기기(-14.1%)만 수출이 감소하고, 조선(76.0%), 반도체(56.2%), 자동차(21.2%), 일반기계(14.5%), 가전(14.2%), 컴퓨터·주변장치(12.3%), 석유(11.8%), 섬유(8.5%), 화학(4.0%), 철강(2.0%) 등 10개 산업은 늘어 21.8%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7.6 → (11월)7.6 → (12월)8.7 → ('24.1월)21.8
 - 주요 11대 산업 중 10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고, 대미국 수출도 역대 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
- 전월대비: 무선통신기기(15.1%), 가전(14.0%), 화학(5.5%), 석유(4.9%), 철강(2.7%) 등의 수출은 늘었으나, 조선(-31.8%), 반도체(-15.0%), 컴퓨터·주변장치(-9.0%), 섬유(-6.9%), 일반기계(-5.4%), 자동차(-0.4%) 등은 줄어 6.0% 감소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3.10월)2.3 → (11월)0.3 → (12월)5.3 → ('24.1월)-6.0

표 3 |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2			2023				2024		
	10월	11월	12월	1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1월*	전월대비
11대 산업	-9.2	-16.4	-11.5	-19.0	7.6	7.6	8.7	5.3	21.8	-6.0
반도체	-17.4	-29.9	-29.1	-44.5	-3.1	12.9	21.7	15.9	56.2	-15.0
자동차	20.3	21.3	16.6	9.1	13.3	16.9	10.2	-3.5	21.2	-0.4
화학	-8.1	-4.6	2.4	5.3	-3.1	6.0	3.8	0.3	4.0	5.5
일반기계	-2.2	10.5	5.8	-15.7	10.3	13.8	2.1	-5.1	14.5	-5.4
철강	-20.8	-10.6	-20.9	-25.9	-0.9	-11.1	-5.2	1.6	2.0	2.7
조선	-8.8	-68.2	76.1	85.0	101.8	31.6	47.2	149.6	76.0	-31.8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는 주요 메모리 기업의 감소와 더불어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 AI 서버 투자 확대·일반서버교체, AI PC 신규 출시 및 기업용 PC 교체 수요 등에 따른 수급여건 개선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 중국·홍콩 등 글로벌 IT 생산기지국에 대한 수출 회복, HBM 등 고부가메모리 판매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56.2% 증가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23.1월) 60.0(-44.5%) → ('24.1월) 93.7(56.2%)
 -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23.1월) 27.7(-57.3%) → ('24.1월) 52.7(90.5%)
 - D램(8Gb) 고정가(달러): ('23.11월) 1.55 → (12월) 1.65 → ('24.1월) 1.80

3)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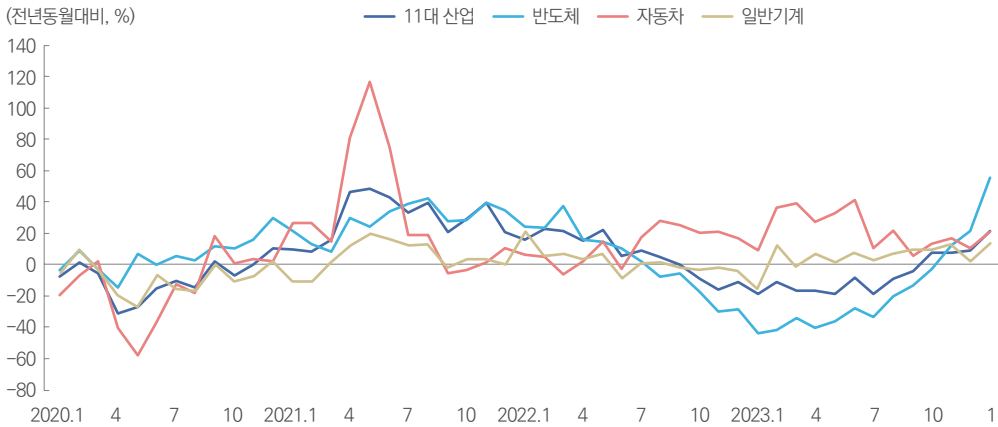
- 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완성차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자동차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미국 현지 공장 내 생산모델 확대 등에 따라 부품 수출도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1.2% 증가하며 19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자동차 수출액(억 달러)/증감률: ('23.1월) 67.1(9.1%) → ('24.1월)81.3(21.2%)
 - 완성차 수출액(억 달러)/증감률: ('23.1월) 49.8(21.8%) → ('24.1월)62.1(24.8%)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 달러)/증감률: ('23.1월) 17.3(-16.2%) → ('24.1월)19.1(10.8%)
- 일반기계는 중국·EU의 신규 투자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아세안 등에서 생산·설비투자 확대로 공작기계 등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중동 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증가

 - 일반기계 수출액(억 달러)/증감률: ('23.1월) 38.6(-16.0%) → ('24.1월)44.2(14.5%)
- 화학은 글로벌 시장 내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유류설비 재가동 및 '23년 신증설된 설비의 본격 가동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 인도 등의 건설·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4.0% 증가

 - 화학 수출단가(달러/톤)/증감률: ('23.1월) 1,245 → ('24.1월)1,213(-2.6%)
 - 화학 수출액(억 달러)/증감률: ('23.1월) 38.5(-24.0%) → ('24.1월)40.0(4.0%)

그림 3 |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I. 지출

II. 생산·고용·인구

III. 금융·자산

IV. 해외경제동향

V. 기술경제동향

VI. 경제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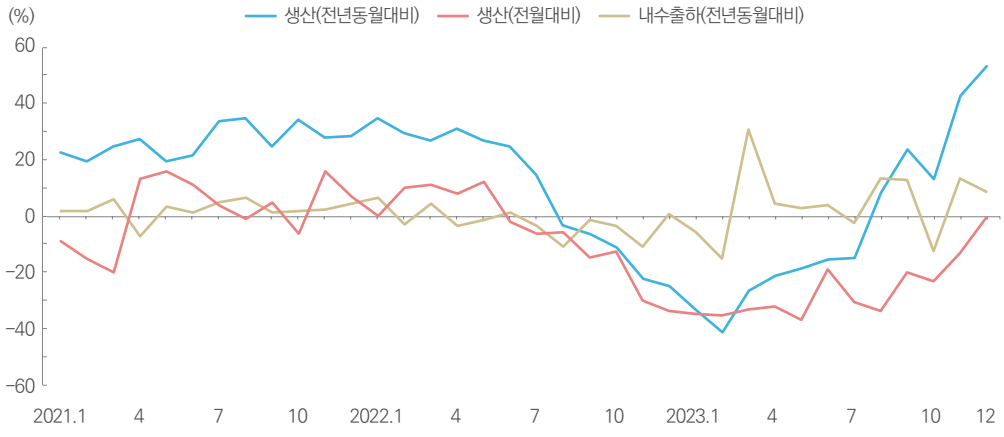
나. 제조업 생산

반도체: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

■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3.3%, 전월대비로는 8.5%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10월)13.0 → (11월)42.8 → (12월)53.3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10월)-12.7 → (11월)13.2 → (12월)8.5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10월)-23.5 → (11월)-13.1 → (12월)-0.7

| 그림 4 | 반도체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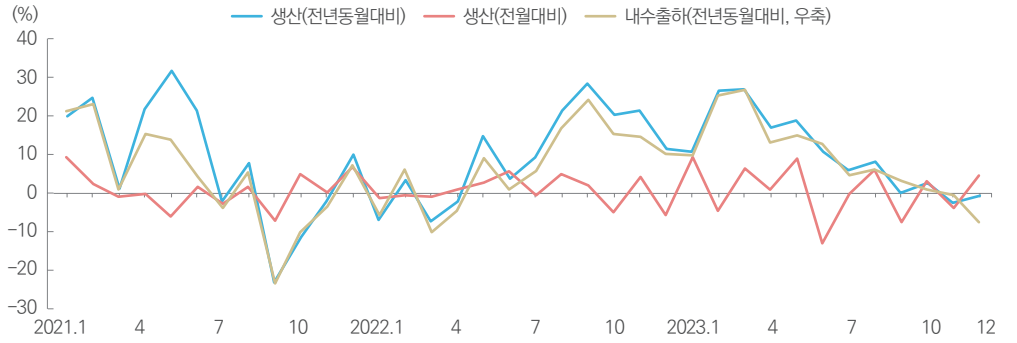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동차: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전월대비로는 4.7%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10월)2.5 → (11월)-2.4 → (12월)-0.8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10월)3.0 → (11월)-3.7 → (12월)4.7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10월)0.8 → (11월)-0.4 → (12월)-7.5

| 그림 5 | 자동차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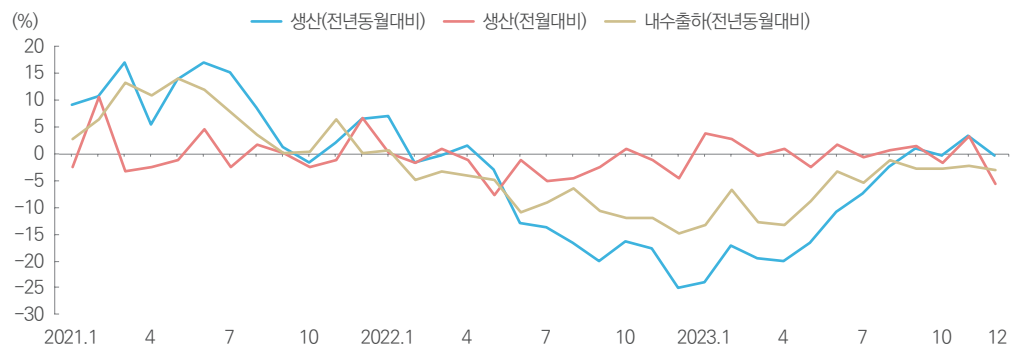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화학 산업: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23.12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화학섬유 제조업(-27.4%)과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3.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화학섬유 제조업은 폴리아미드 섬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해외 이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감광제 수출이 부진한 관계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전월대비로는 5.7% 감소하였는데, 기초화학 제품은 중국의 생산시설 증설로 인한 국내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주요 사업장의 정기 보수,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은 화장품의 중국 수출 부진에 주로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10월) -0.5 → (11월) 3.2 → (12월) -0.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10월) -1.7 → (11월) 3.1 → (12월) -5.7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10월) -2.9 → (11월) 2.4 → (12월) -3.2

| 그림 6 | 화학산업 생산·내수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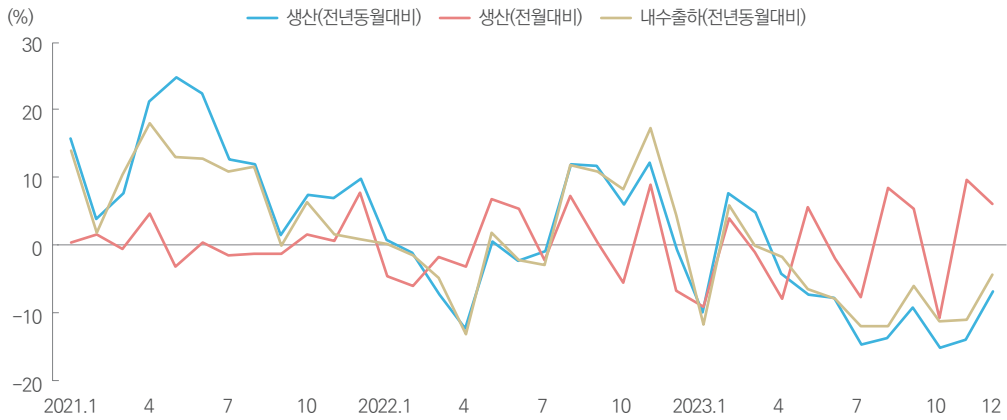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일반기계: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23.12월 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0% 감소, 전월대비로는 6.1%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0월)-15.2 → (11월)-14.2 → (12월)-7.0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10월)-10.8 → (11월)9.6 → (12월)6.1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0월)-11.4 → (11월)-11.1 → (12월)-4.4

| 그림 7 |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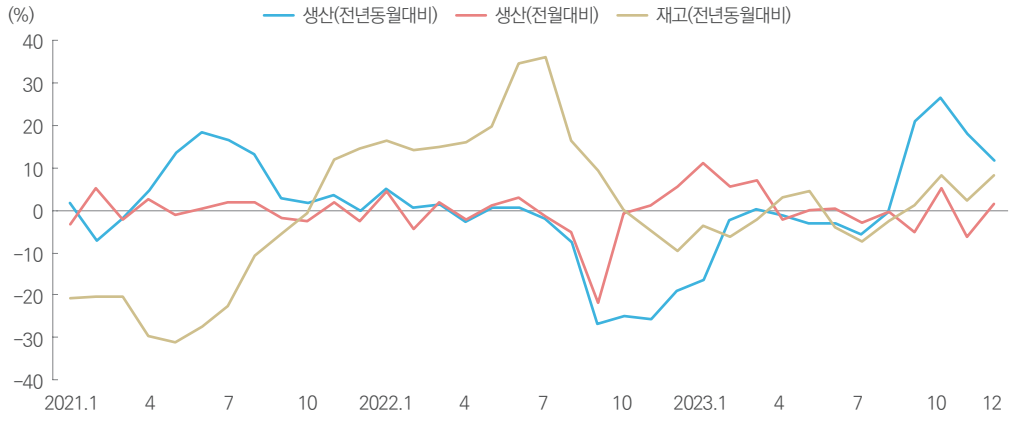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철강: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8%, 전월대비로는 1.5%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0월)26.7 → (11월)18.0 → (12월)11.8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10월)5.2 → (11월)-6.3 → (12월)1.5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0월)8.0 → (11월)2.2 → (12월)8.3

| 그림 8 |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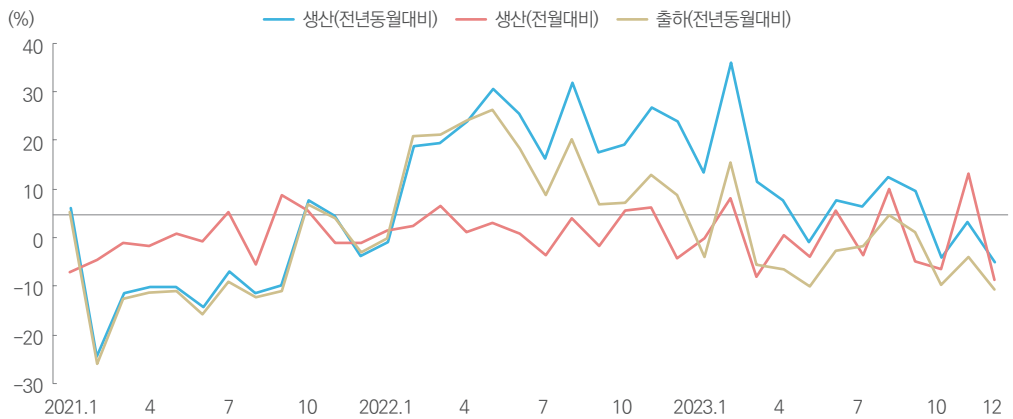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선: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5.1%, 8.9%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10월)-4.1 → (11월)3.2 → (12월)-5.1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10월)-6.7 → (11월)13.2 → (12월)-8.9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10월)-9.8 → (11월)-3.9 → (12월)-10.8

| 그림 9 | 조선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I. 지출

II. 생산·고용·인구

III. 금융·자산

IV. 해외경제동향

V. 기술경제동향

VI. 경제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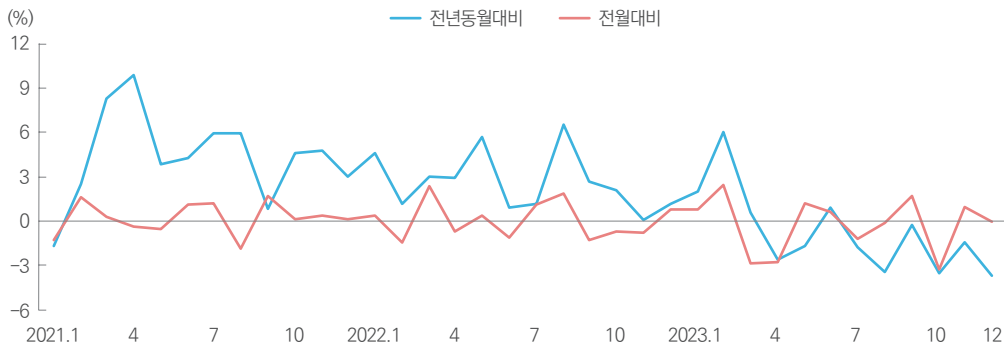
다. 서비스업 생산

도매 및 소매업: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정체

■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도매업(-4.4%)과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3.3%)과 소매업(-2.3%)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

- 도매업의 경우 생활용품(-7.4%), 음·식료품 및 담배(-5.6%),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4.5%)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컸는데, 이는 소비 및 제조업 생산 부진, 설 명절이 2022년 1월에서 2023년 2월로 이동한데 기인
- 소매업의 경우 기타 생활용품(-12.8%), 섬유·의류신발 및 가죽제품(-6.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 장비(-3.4%)의 감소폭이 컸는데, 소비심리 위축과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에 따른 동절기 의류판매 및 난방가전 수요 감소에 기인
- 전월대비로는 도매업은 0.4% 증가하고 소매업은 0.5% 감소하면서 생산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10월) -3.6 → (11월) -1.5 → (12월) -3.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10월) -3.3 → (11월) 1.0 → (12월) 0.0

| 그림 10 |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금융 및 보험업: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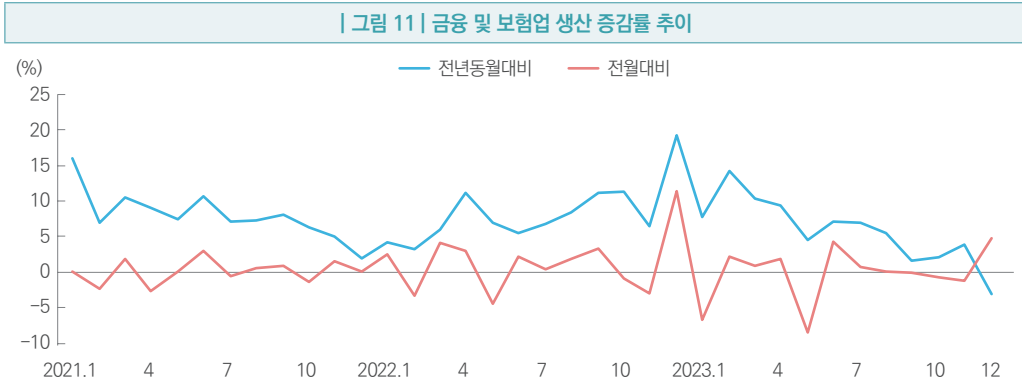
■ 보험 및 연금업(-22.6%)을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3.0% 감소

- 보험업 중 생명보험업이 전년동기대비 14.5%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2022년 수입보험료 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에 기인⁴⁾

4)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조원): 2021년 32.5 → 2022년 45.3 (39.2%)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조원): 2021년 23.9 → 2022년 27.5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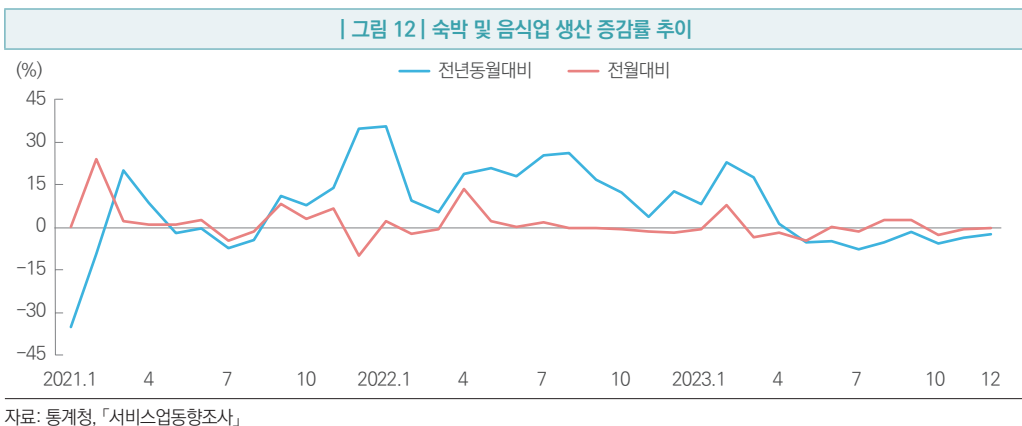
- 전월대비로는 4.9% 증가하였는데,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수익이 증가하였고 연금 및 공제회는 연말 자금 유입이 증가한 데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10월) 2.1 → (11월) 3.9 → (12월) -3.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10월) -0.6 → (11월) -1.1 → (12월) 4.9



숙박 및 음식업: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전월대비로는 0.3%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10월)-5.3 → (11월)-3.4 → (12월)-2.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10월)-2.6 → (11월)-0.4 → (12월)-0.3



I. 지출

II. 생산·고용·인구

III. 금융·자산

IV. 해외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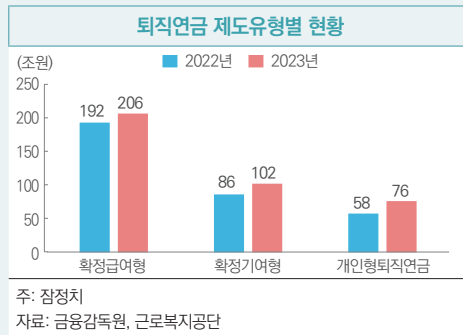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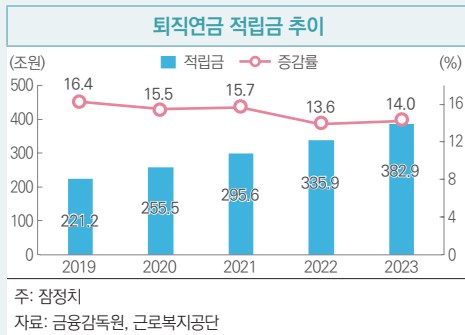
V. 기술경제 동향

VI. 경제 원안

[BOX 1] 최근 연금상품의 적립금 및 수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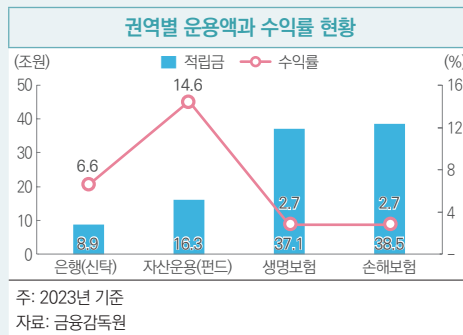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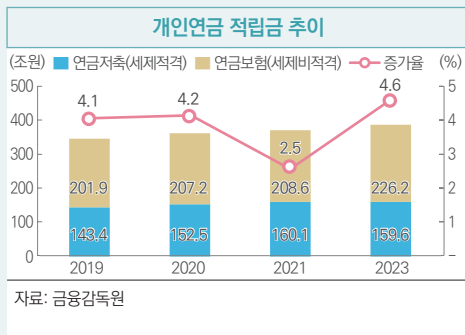
■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3년 기준 383조원으로 전년대비 14.0% 증가

-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이 206조원, 확정기여형이 102조원, 개인형 퇴직연금이 76조원 순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의 증가율이 31.9%로 높음
- 상품유형별로 살펴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333조원으로 87.1%를 차지
- 연간수익률은 평균 5.6%이며 원리금 보장형 4.3%, 원리금 비보장형 15.2%



■ 개인연금 적립금은 2022년 385.8조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

-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되며 적립금은 각각 159.6조원, 226.2조원
- 연금저축 적립금 중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규모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97.8조원, 100.8조원⁵⁾
- 권역별 운용액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손해보험 38.5조원, 생명보험 37.1조원, 자산운용(펀드) 16.3조원, 은행 8.9조원
 - 수익률은 자산운용(펀드) 16.3%, 은행(신탁) 6.6%, 생명보험 2.7%, 손해보험 2.7%이며, 보험사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안전자산 비중이 85%로 높은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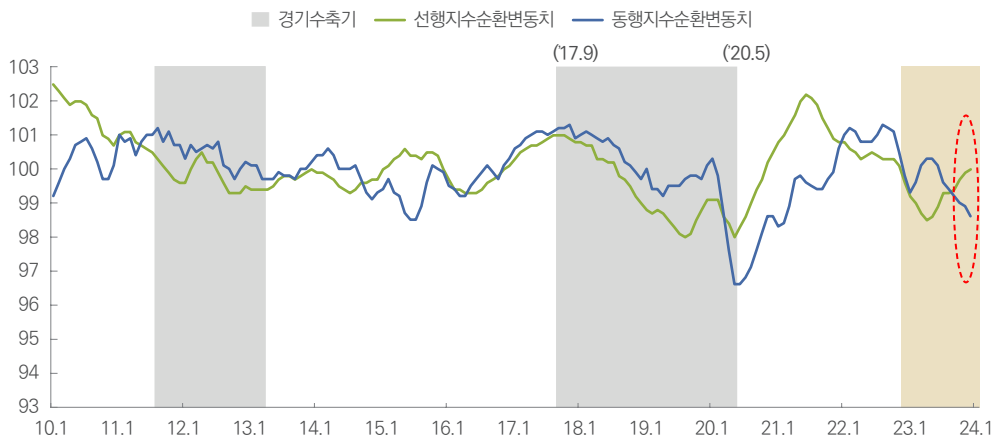
5) 연금적립금에 비해 운용 규모가 작은 것은 세제혜택을 위해 연말에 예치되는 적립금이 많은데 기인

라. 경기종합지수

'23.12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는 하락하고 선행지수는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98.6)는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에서 전월에 이어 감소하며 전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전월보다 하락폭도 확대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10월)-0.2 → (11월)-0.1 → (12월)-0.3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0.0)는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등에서 증가하며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전월보다 상승폭은 둔화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10월)0.3 → (11월)0.2 → (12월)0.1

| 그림 13 |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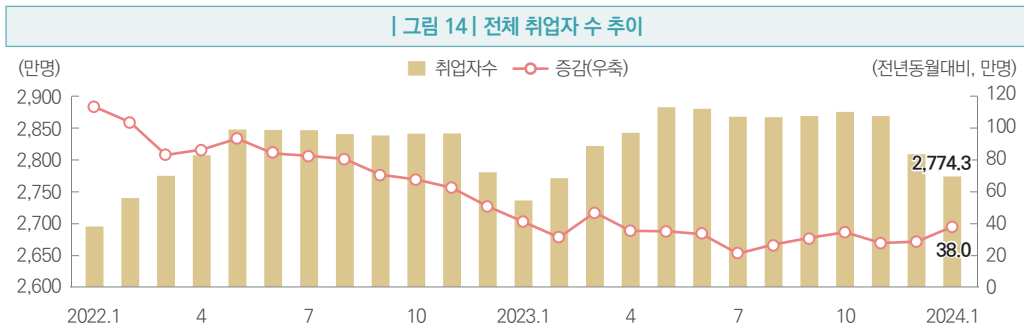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2 고용

'24.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8.0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

■ '24.1월 취업자 수는 2,77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0만명 증가하여 '21.3월 이후 증가세 유지

-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27.7 → (12월)28.5 → ('24.1월)38.0
- 계절조정 취업자 수(전월대비, 만명): ('23.11월)-3.5 → (12월)1.1 → ('24.1월)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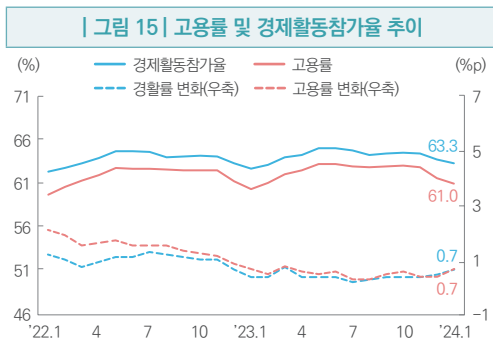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 ('23.11월)64.6 → (12월)63.8 → ('24.1월)63.3

■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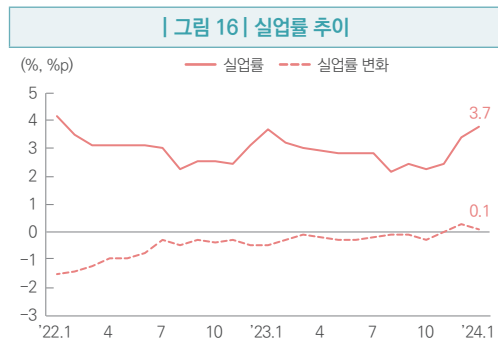
- 고용률(%): ('23.11월)63.1 → (12월)61.7 → ('24.1월)61.0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 ('23.11월)2.3 → (12월)3.3 → ('24.1월)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4.1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전산업에서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만명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1.1 → (12월)1.0 → ('24.1월)2.0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8.7만명 증가하여 35개월 연속 증가

• 서비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25.3 → (12월)22.6 → ('24.1월)28.7
 • 전문·과학·기술업, 운수·창고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되는 가운데, 도·소매업은 정체, 숙박음식점업은 하락 전환, 교육서비스업 등은 하락세 유지

■ 건설업 취업자 수는 7.3만명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증가

• 건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3.2 → (12월)7.1 → ('24.1월)7.3

'24.1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고령층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15~29세 및 40대는 감소

■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5.0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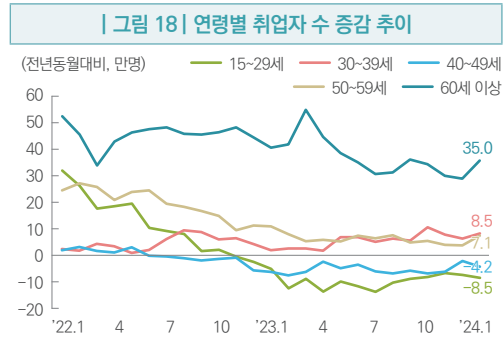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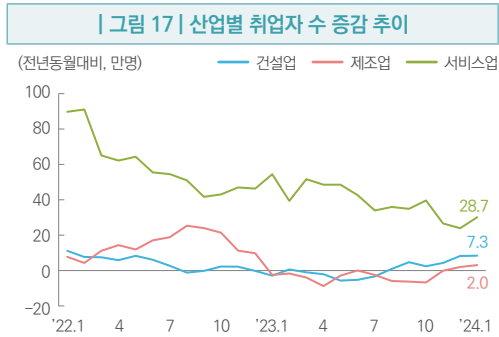
• 고령층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29.1 → (12월)28.0 → ('24.1월)35.0

■ 15~29세 취업자 수는 '22.11월 이후 감소세 유지

• 15~29세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6.7 → (12월)-7.4 → ('24.1월)-8.5

■ 30대와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

• 3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8.0 → (12월)6.4 → ('24.1월)8.5
 • 4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6.2 → (12월)-1.9 → ('24.1월)-4.2
 • 5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3.6 → (12월)3.4 → ('24.1월)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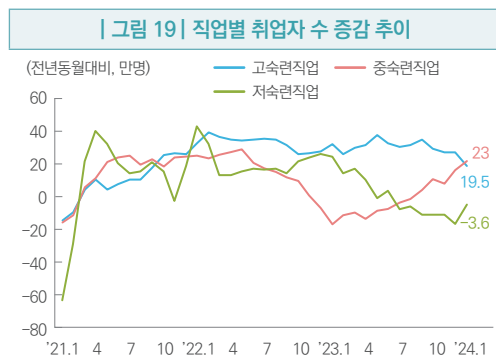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4.1월 「직업별 취업자 수」⁶⁾는 저숙련 직업 취업자만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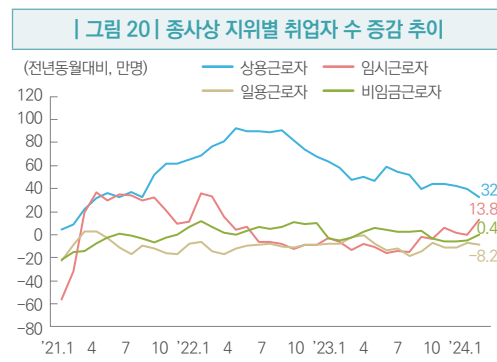
- **고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5만명 증가하였으며 '21.3월 이후 35개월째 증가세 유지**
 - 고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82.2 → (12월)28.0 → ('24.1월)19.5
- **중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3만명 증가하였으며 5개월째 증가세 유지**
 - 중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8.2 → (12월)17.3 → ('24.1월)23.0
- **저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6만명 감소하였으며 7개월째 감소세 유지**
 - 저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10.4 → (12월)-15.9 → ('24.1월)-3.6

'24.1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는 일용근로자만 전년동월대비 감소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7.6만명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는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임시근로자는 증가세 확대**
 -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41.9 → (12월)39 → ('24.1월)32.0
 -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2.5 → (12월)1.0 → ('24.1월)13.8
 -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10.7 → (12월)-6.9 → ('24.1월)-8.2
-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0.4만명 증가하였으며, 5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월)-6.0 → (12월)-4.7 → ('24.1월)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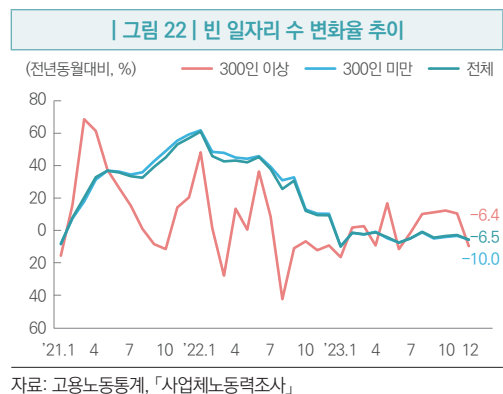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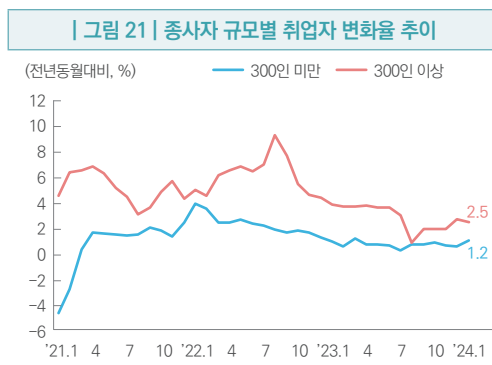
6) 직업의 숙련 별 분류는 OECD(2019) "Where Have the Middle Class Job Gone?"을 인용. "고숙련 직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 중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숙련 직업"은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저숙련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로 구성

'24.1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는 종사자 300인 사업체 기준 전 규모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소폭 감소
 -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3.11월)6.2(2.0) → (12월) 8.5(2.8) → ('24.1월)7.6(2.5)
-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2%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소폭 증가
 -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3.11월)21.7(0.9) → (12월) 20.0(0.8) → ('24.1월)20.4(1.2)

'23.12월 「빈 일자리 수」는 13,999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2개월째 감소

-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822개 감소하여 5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 빈 일자리 수(300인 이상)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23.10월)0.9(12.3) → (11월) 0.7(10.4) → (12월)-0.8(-10.0)
-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13,177개 감소하여 12개월째 감소세 유지
 - 빈 일자리 수(300인 미만)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23.10월)-9.7(-4.7) → (11월) -7.8(-4.0) → (12월)-13.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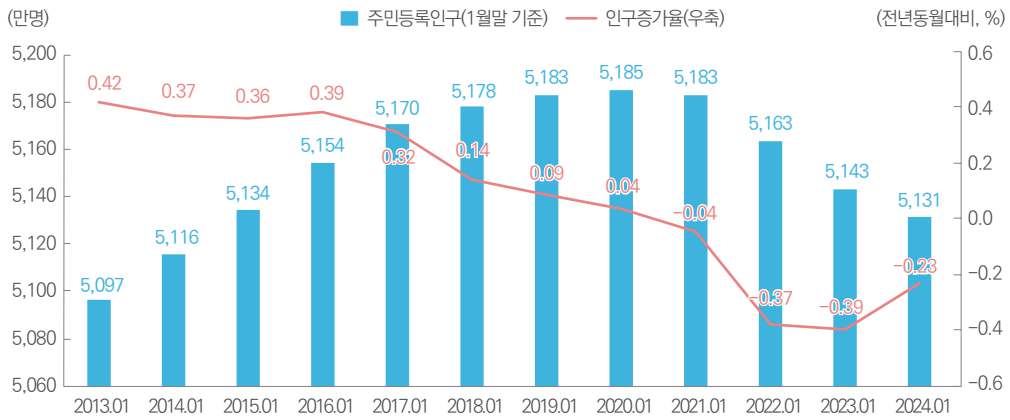


3 인구

'24.1월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만 6천명(-0.23%) 감소

-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월 주민등록 인구는 5,13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3% 감소
 - 각 연도 1월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0.04%, 2022년 -0.37%, 2023년 -0.39%로 감소 지속

| 그림 23 |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3.1월~2024.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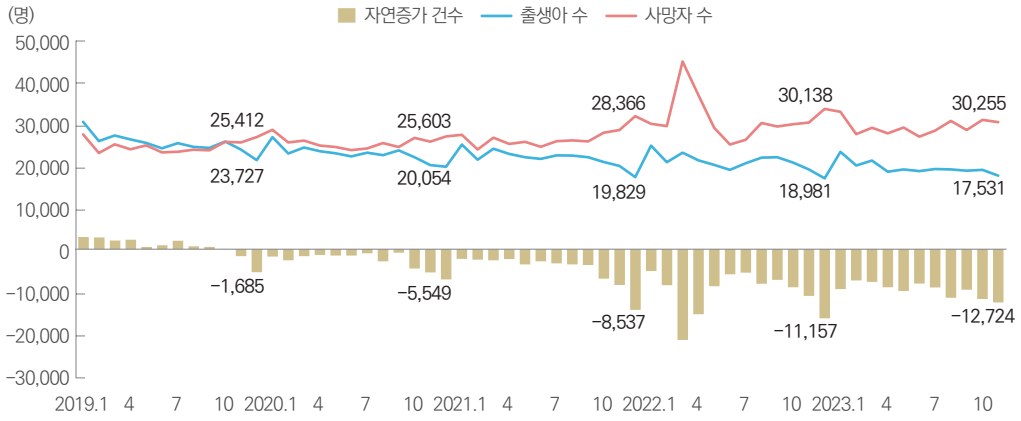


주: 각 연도 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23.11월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를 하회하면서 49개월째 자연감소 지속

- '23.11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1,450명(-7.6%) 감소한 1만 7,531명을 기록
- '23.11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7명(0.4%) 증가한 3만 255명을 기록

| 그림 24 |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월~2023.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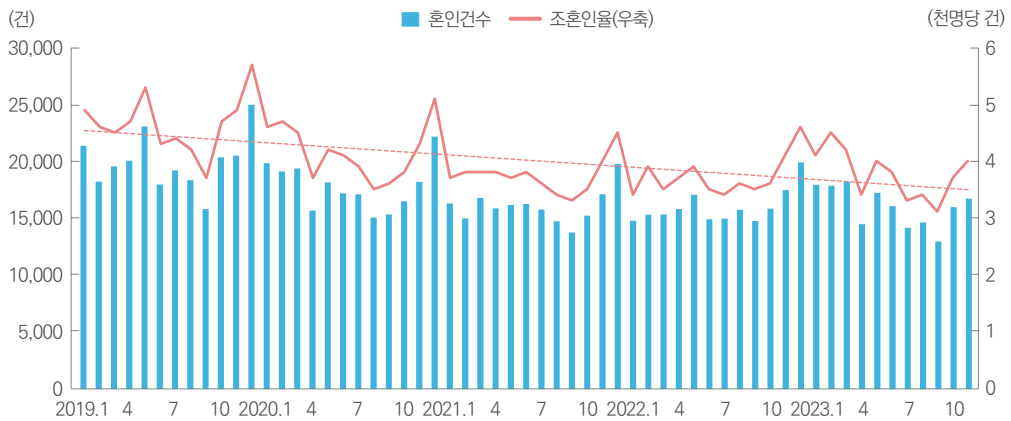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3.11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감소 추세 지속

- '23.11월 혼인건수는 1만 6,6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60건(-4.4%) 감소하였고, 조혼인율은 4.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1건 감소

• 각 연도 11월 기준 조혼인률은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4.0건, 2022년 4.1건

| 그림 25 |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9.1월~2023.11월)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III

경제동향

금융·자산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

- '24.1월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상승
 - 국고채(3년) 금리(%): ('23.11월말)3.58 → (12월말)3.15 → ('24.1월말)3.26
- '24.1월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 ('23.11월말)1,289 → (12월말)1,289 → ('24.1월말)1,331

'24.1월 중 「원유」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모두 하락,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모두 하락

- 원유 가격은 경기회복 기대로 전월대비 2.6% 상승,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과 미국의 수요 감소와 난방수요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각각 11.9%, 0.9% 하락
 - 원유 가격(달러/배럴): ('23.11월)81.4 → (12월)75.7 → ('24.1월)77.7
 - 석탄 가격(달러/톤): ('23.11월)126.8 → (12월)141.8 → ('24.1월)124.9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3.11월)12.6 → (12월)14.4 → ('24.1월)14.3
-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중국 경기 부진,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각각 0.7%, 1.6%, 0.3%, 0.3% 하락
 - 농산물 지수: ('23.11월)110.1 → (12월)108.9 → ('24.1월)108.1
 - 식품 지수: ('23.11월)123.7 → (12월)120.0 → ('24.1월)118.0
 - 금속·광물 지수: ('23.11월)101.2 → (12월)102.4 → ('24.1월)102.0
 - 귀금속 지수: ('23.11월)149.9 → (12월)153.0 → ('24.1월)152.6

'24.1월 「최대전력」은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 1월 최대전력은 89.2GW로 전년동월대비 3.6% 하락하였으며, '24.1월 평균기온이 0.9℃로 평년(-0.9℃)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최대전력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는 1kWh당 71.8원으로 전월(89.6원)대비 19.9% 하락하였고,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164.6원으로 전월(152.2원)대비 8.1% 상승

'23.12월 「전력수요」는 산업부문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 2023년 12월 총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5%(712GWh) 감소했는데, 가정부문 1.6%, 서비스부문 0.3% 증가하였으나, 산업부문 3.4%, 공공부문 0.7% 감소

'24.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지역 하락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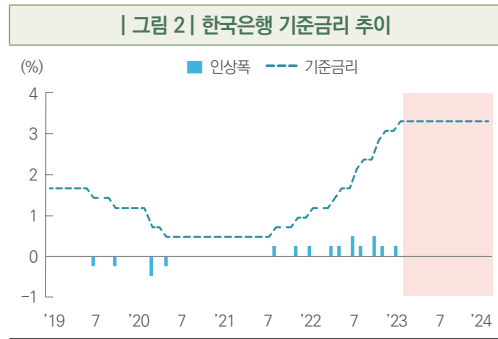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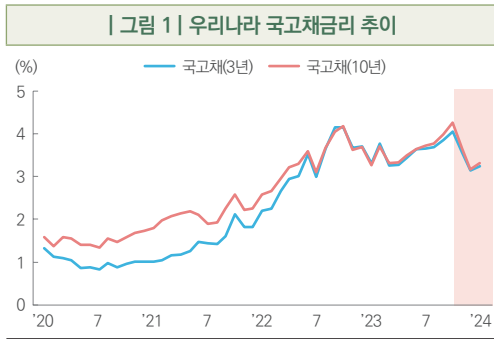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0.14% → -0.18%)과 지방(-0.07% → -0.11%) 모두 하락폭 확대되며 전국적으로 하락폭 확대(-0.10% → -0.14%)

1 ▶ 국내 금융시장

가. 금리

'24.1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는 상승

- '24.1월 국고채금리는 한국은행 및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상승
 - 1월말 한국 국고채(3년) 금리는 3.26%로 전월말 대비 0.11%p 상승하였으며, 국고채(10년) 금리는 3.35%로 전월말 대비 0.17%p 상승
 - 한편 1월말 기준 국고채(3년) 금리와 국고채(10년) 금리는 전년도 고점인 '23.10월말 대비로는 각각 0.82%p, 0.98%p 낮은 수준
- 한편 '24.1월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
 - '24.1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안정의 기반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2024년 1월까지 8차례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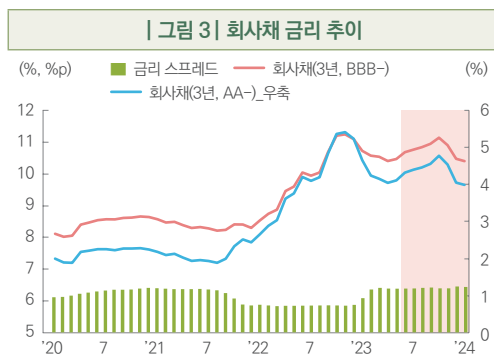


'24.1월 「회사채 금리」와 '23.12월 「기업대출 금리」는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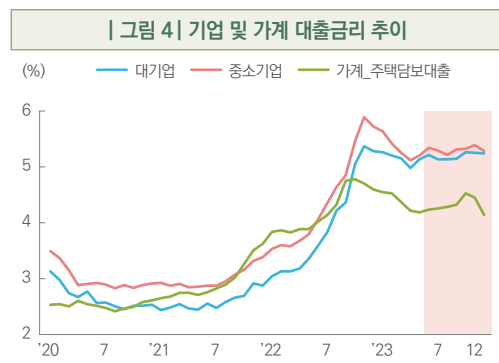
- '24.1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물가상승률 둔화,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세 지연 우려 등으로 하락
 - 1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말 대비 0.06%p 하락한 4.01%, 회사채 3년물(BBB-) 금리도 전월말 대비 0.08%p 하락한 10.45%를 기록
 - 회사채(3년, AA-)와 회사채(3년, BBB-) 금리는 2023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 '23.12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하락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대출 금리 대비 크게 하락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축소

- '23.12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말 대비 0.01%p 하락한 5.28%,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말 대비 0.11%p 하락한 5.31%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2023년 11월 0.13%p에서 12월 0.03%p로 축소
- 한편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3.11~12월 2개월 연속 하락하며 12월 기준 전월 대비 0.32%p 하락한 4.16%를 기록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월평균 금리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나. 환율

'24.1월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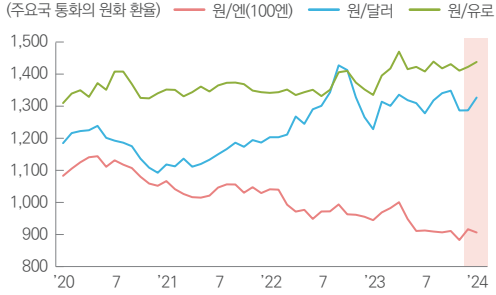
■ '24.1월 미 달러, 유로화에 대한 대원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전월말 대비 상승하였으나 일본 엔화의 대원화 환율은 소폭 하락

- 1월말 원/달러, 원/유로 환율은 각각 1,331원, 1,443원으로 전월말 대비 3.20%, 1.16% 상승
- 반면 원/엔화 환율은 902원으로 전월말 913원 대비 1.18% 하락

■ 한편 '24.1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결제수요 증가 등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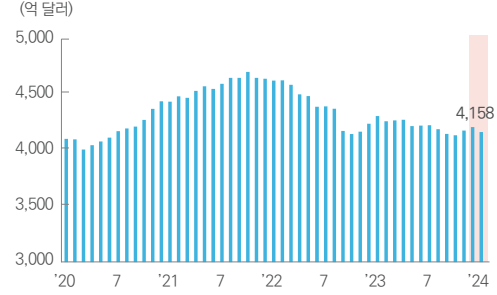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3.11~12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3.10월 4,129억 달러에서 12월 4,20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4.1월 44억 달러 감소하며 4,158억 달러를 기록

| 그림 5 |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그림 6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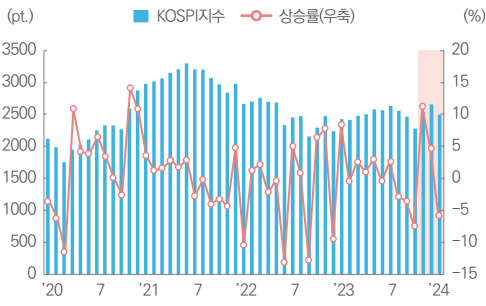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다. 주가

'24.1월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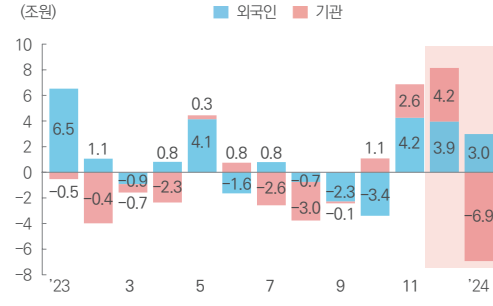
- '24.1월 국내 주가는 기관투자자의 순매도세, 대내외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
 - '24.1월말 국내 KOSPI지수는 전월말(2,655) 대비 5.96% 하락한 2,497을 기록
- 기관투자자는 '23년 10~12월 국내 주식에 대한 순매수세를 나타냈으나 1월 순매도로 전환
 - 기관투자자는 '23년 10~12월 7.9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였으나 '24.1월 들어 6.9조원을 순매도
 -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23.11월~'24.1월까지 3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기록하며 11.1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

| 그림 7 | KOSPI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 그림 8 |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자료: Fnguide

2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24.1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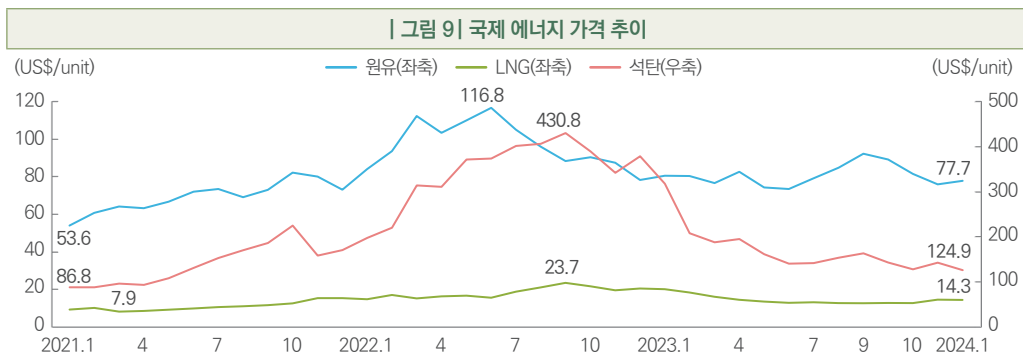
- 원유 가격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OPEC+의 감산 결정^{가)} 등의 요인으로 배럴 당 77.7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4% 하락, 전월대비 2.6% 상승
 - 원유 가격(달러/배럴): ('23.11월)81.4 → (12월)75.7 → ('24.1월)77.7

'24.1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석탄 가격은 유럽과 미국 중심의 수요 감소로 인해 톤당 124.9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0.7%, 전월대비 11.9% 하락
 - 석탄 가격(달러/톤): ('23.11월)126.8 → (12월)141.8 → ('24.1월)124.9

'24.1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천연가스 가격은 동절기 정점인 1월 이후의 하방압력으로 백만비티유(MMbtu)당 14.3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9.1%, 전월대비 0.9% 하락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⁸⁾): ('23.11월)12.6 → (12월)14.4 → ('24.1월)14.3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3.2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2.8% 하락, 전월대비 25.9% 상승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9.6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52.6%, 전월대비 16.9% 하락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원유는 배럴(bb),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석유수출국기구(OPEC)

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는 2023년 11월 30일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1분기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에 합의

8)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F)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량

'24.1월 「농산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농산물 지수는 108.1로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급량 증가로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씨유, 콩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7%, 전월대비 0.7% 하락
 - 농산물 지수: ('23.11월)110.1 → (12월)108.9 → ('24.1월)108.1

'24.1월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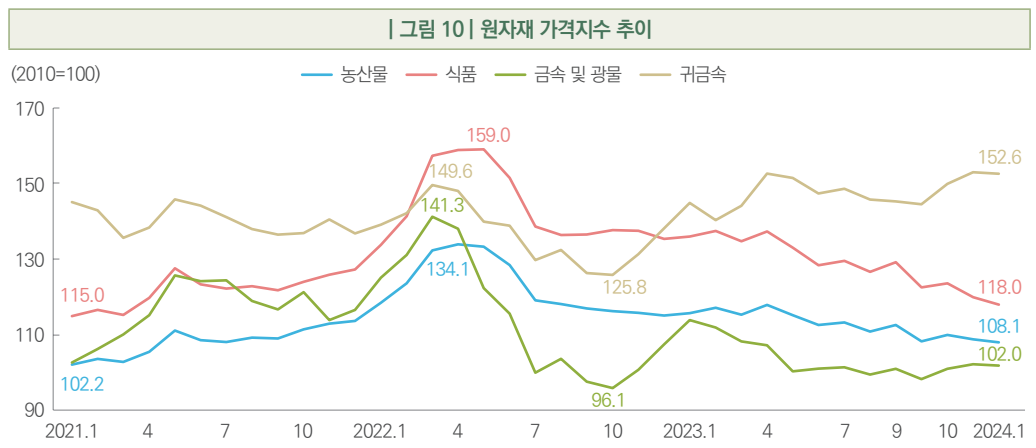
- 식품 지수는 118.0으로 수출국 간 가격 경쟁이 지속되면서 닭고기, 밀, 쌀, 바나나, 오렌지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3.2%, 전월대비 1.6% 하락
 - 식품 지수: ('23.11월)123.7 → (12월)120.0 → ('24.1월)118.0

'24.1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금속·광물 지수는 102.0으로 중국 경기 부진, 신규 광산 개발에 따른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니켈, 아연, 주석, 구리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전월대비 0.3% 하락
 - 금속·광물 지수: ('23.11월)101.2 → (12월)102.4 → ('24.1월)102.0

'24.1월 「귀금속」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귀금속 지수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152.6으로 금을 중심(은과 백금은 하락)으로 전년 동월대비 5.3% 상승, 전월대비 0.3% 하락
 - 귀금속 지수: ('23.11월)149.9 → (12월)153.0 → ('24.1월)152.6



주: 세계은행 원자재가격 데이터(Pink sheet)는 2010년=100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을 나타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BOX2] 국내 에너지 수요

- '23.11월 「최종에너지 소비」⁹⁾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회복과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와 도시가스 및 열 등의 난방 수요를 중심으로 에너지원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천연가스(46.9), 열(21.8), 석탄(9.9), 신재생 및 기타(2.8), 석유(1.4), 도시가스(1.4), 전력(1.3)
- 전월대비로는 겨울철 난방 수요로 인해 열, 도시가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9% 증가
 - 전월대비 증감률(%): 열(133.5), 도시가스(56.7), 신재생 및 기타(3.9), 석유(3.1), 전력(3.0), 천연가스(2.3), 석탄(1.7)
- 에너지 소비 부문별로는 냉방도일의 증가로 건물부문(가정·상업·공공)의 에너지소비가 각각 전월대비 57.5%, 9.0% 증가하여 전체 수요를 견인
 - 전월대비 증감률(%): 가정(57.5), 상업·공공(9.0), 수송(4.4), 산업(2.8)

에너지원별, 소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2020	2021	2022p	2023p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03,747	215,664	213,720	16,453	16,212	17,492	3.4	7.9
전년동기대비		-3.8	5.8	-0.9	4.3	-0.1	3.4	-	-
에너지원별	석탄	31,152	32,251	29,988	2,621	2,572	2,660	9.9	1.7
	석유	95,850	103,310	101,602	8,013	7,512	8,366	1.4	3.1
	천연가스	2,119	2,131	2,227	244	235	271	46.9	2.3
	도시가스	22,632	23,382	23,837	1,382	1,146	1,120	1.4	56.7
	전력	42,733	44,748	46,039	3,479	3,632	3,932	1.3	3.0
	열	2,592	2,701	2,872	110	94	100	21.8	133.5
	신재생 및 기타	6,668	7,141	7,154	545	578	677	2.8	3.9
부문별	산업	124,013	132,960	129,990	10,471	10,401	10,697	3.2	2.8
	수송	34,746	36,636	36,291	2,869	2,846	2,971	5.1	4.4
	가정	22,356	22,940	23,216	1,106	1,221	1,923	3.5	57.5
	상업·공공	22,632	23,128	24,223	2,008	1,744	1,901	1.4	9.0

주: 1) 2022년, 2023년 자료는 잠정치(p)

2) 개정된 에너지밸런스 기준으로 작성

3) 신재생 및 기타는 바이오 및 폐기물, 지열, 태양 및 기타 포함, 수력은 합계에 포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9)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 그리고 상업·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 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나. 전력수급동향

'24.1월의 「최대전력」은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 '24.1월 최대전력은 89.2GW로 전년동월대비 3.6% 하락하였고, 전력공급안정성을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15.8GW, 전력공급예비율 17.7%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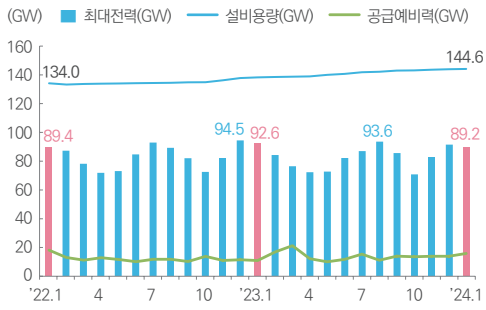
• 1월 상순 및 중순에는 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 발생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았고, 이에 1월 평균기온이 0.9℃로 평년(-0.9℃)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최대전력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 '24.1월 1kWh당 정산단가¹¹⁾는 135.4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7% 하락

•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¹²⁾는 1kWh당 71.8원으로 전월(89.6원)대비 19.9% 하락하였고, 최고치인 2022년 8월(130.5원)대비 45.0% 하락하였으며,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164.6원으로 전월(152.2원)대비 8.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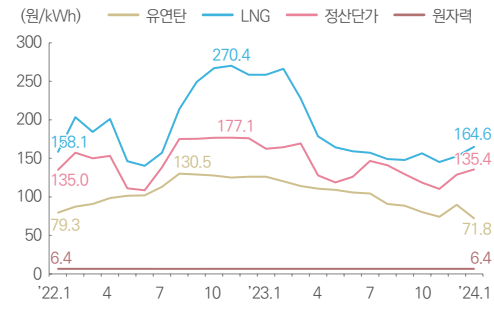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35.4원으로 전월대비로는 5.3% 상승하였으며, 최고치인 2022년 11월(177.1원)대비 23.5% 하락

| 그림 11 | 월별 최대전력 및 전력공급예비력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12 |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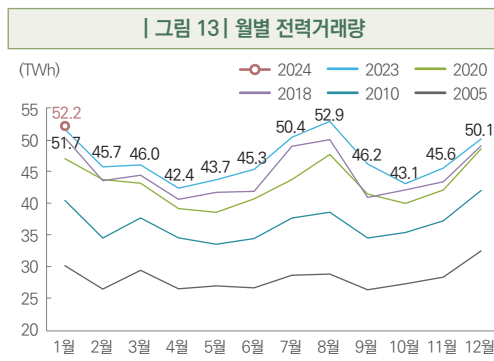
10)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11) 정산단가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시 전력공급자(전력구매자)가 받아야 할 금액(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계산한 단위당 가격으로 전력공급비용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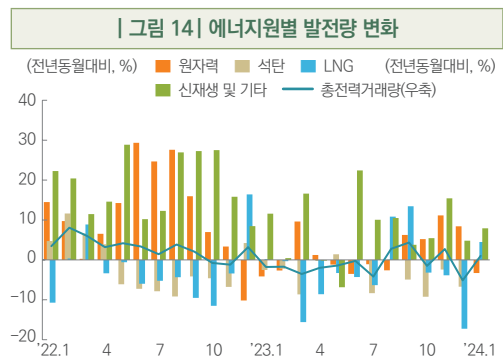
12) 연료비단가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만을 의미함

'24.1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신재생 및 기타는 7.9%, 가스는 4.5% 증가

- '24.1월 전력거래량¹³⁾은 52,176GWh로 전월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0% 증가
- '24.1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신재생 및 기타는 7.9%, 가스는 4.5%, 석탄은 0.3% 증가 하였으나, 원자력은 3.3% 감소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 33.3%, 가스 30.0%, 원자력 27.2%, 신재생 및 기타 8.7% 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3.12월 「전력수요」는 산업부문에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 '23.12월 총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5%(712GWh) 감소했는데, 가정부문의 수요가 1.6%(102GWh) 증가한 반면, 산업부문의 수요는 3.4%(837GWh) 감소
 - 전년동월대비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1.6%, 서비스부문은 0.3% 증가하였으나, 산업부문은 3.4%, 공공부문은 0.7% 감소
 - 총 전력수요에서 각 부문의 비중은 산업 50.9%, 서비스부문 29.8%, 가정부문 13.8%, 공공부문 5.5%였음
- '23년 총 전력수요는 전년대비 가정부문 1.7%, 서비스부문 1.6%, 공공부문 1.5% 증가하였음에도 산업부문에 2.2% 감소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소폭(0.4%) 감소

13)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에 PPA거래량을 포함한 총 전력거래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된 통계임

표 1 |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20	2021	2022	12월	2023p	11월	12월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09,270	533,431	547,933	46,928	545,966	42,906	46,215	-1.5	7.7
전년동기대비	-2.2	4.7	2.7	-0.7	-0.4	1.0	-1.5		
가정부문	74,074	77,558	78,558	6,297	79,886	5,984	6,400	1.6	6.9
공공부문	23,666	25,153	26,218	2,548	26,604	2,019	2,530	-0.7	25.3
서비스부문	144,401	148,060	155,220	13,717	157,771	11,833	13,757	0.3	16.3
산업부문	267,129	282,660	287,937	24,366	281,705	23,069	23,528	-3.4	2.0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3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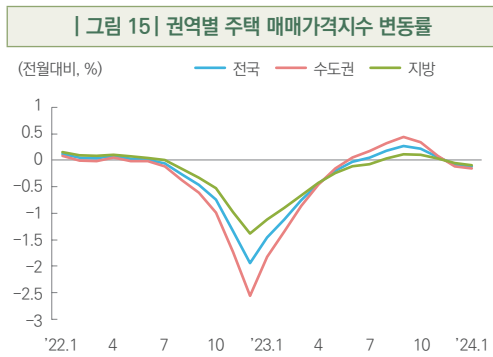
3 부동산

'24.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하락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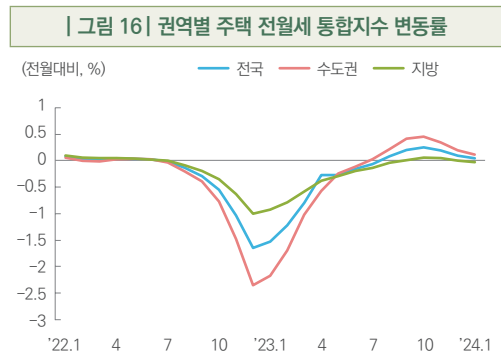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14%, 수도권은 -0.18%, 지방은 -0.11%로 전지역 전월대비 하락폭 확대
 - 매매시장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 거래로 매매가격 하향조정되며 전지역에서 하락폭 확대
 - 176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51개 → 27개)은 감소, 보합 및 하락지역(125개 → 151개)은 증가

'24.1월 전국의 「전월세가격지수」는 상승폭 축소

- 주택 전월세통합지수는 전국 0.06%, 수도권 0.13%로 상승폭 축소, 지방은 -0.01%로 하락 전환
 - 역세권, 선호 지역 위주로 전·월세 상승세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상승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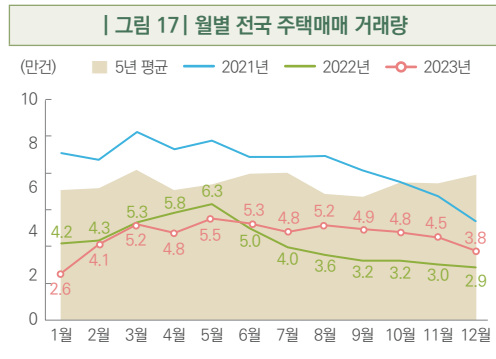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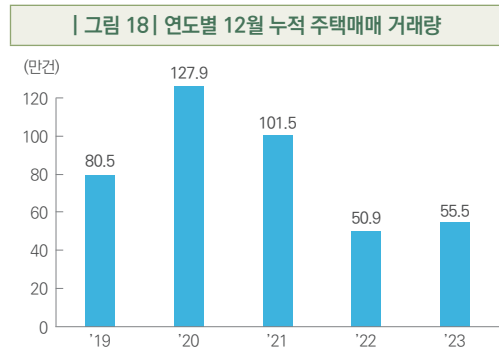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3.12월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월대비 감소, 누적 거래량은 전년대비 증가

- 주택매매 거래량은 3만 8,036건으로 전월대비 16.2% 감소, 전년동월대비 33.0% 증가
 - 수도권(1만 5,083건)은 전월 대비 16.3% 감소, 지방(2만 2,953건)은 전월 대비 16.2% 감소
- '23.12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55만 5,054건으로 전년 동기(50만 8,790건) 대비 9.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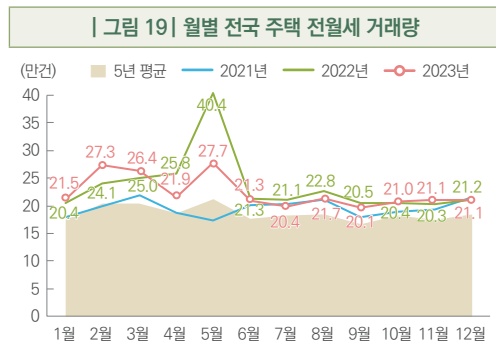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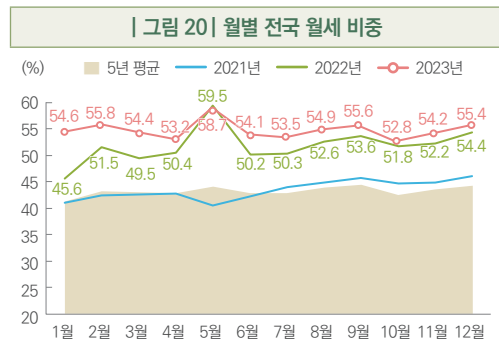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3.12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누적 거래량은 전년대비 감소

-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1,403건으로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 전세(9만 4,211건)는 전월대비 2.6% 감소, 월세(11만 7,192건)는 전월대비 2.4% 증가
- 12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71만 6,993건으로, 전년 동기(283만 3,522건) 대비 4.1% 감소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을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요국 경제 지표

(%)

		2022			2023						2024
		연간	3Q	4Q	연간	2Q	3Q	4Q	11월	12월	1월
생산	미국	3.4	0.5	-0.6	0.2	0.8	1.8	-3.1	0.0	0.1	-
	유로	-0.2	1.1	-1.2	-	0.4	-0.6	-	-0.3	-	-
	일본	0.0	3.1	-1.7	-1.2	1.4	-1.2	1.4	-0.9	1.8	-
소비	미국	2.5	0.4	0.3	2.2	0.2	0.8	0.7	0.5	0.5	-
	유로	-0.2	0.3	-0.9	-	0.1	-0.3	-	-	-	-
	일본	2.6	1.3	1.2	5.6	0.5	2.5	-1.6	1.1	-2.9	-
물가	미국	8.0	8.3	7.1	4.1	4.0	3.5	3.2	3.1	3.4	3.1
	유로	8.4	9.3	10.0	5.5	6.2	4.9	2.7	2.4	2.9	2.8
	일본	2.5	2.9	3.9	3.3	3.4	3.1	2.9	2.9	2.6	-
국채금리	미국	3.0	3.8	3.9	4.0	3.8	4.6	3.9	4.3	3.9	3.9
	유로	1.2	2.1	2.6	2.5	2.4	2.8	2.0	2.4	2.0	2.2
	일본	0.2	0.2	0.4	0.6	0.4	0.8	0.6	0.7	0.6	0.7

주: 1. 생산 및 소비는 전기대비,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주요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이며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Datastream

해외경제 동향

미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실질GDP 성장률(전기비 연율, %): ('23. 2/4)2.1 → (3/4)4.9 → (4/4)3.3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3.10월)0.0 → (11월)0.5 → (12월)0.5
-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23. 11월)102.0 → (12월)110.7 → ('24.1월)114.8

유로지역은 물가는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이 지속

- 산업생산(전월대비, %): ('23.9월)-0.8 → (10월)-0.7 → (11월)-0.3
- 종합PMI(전월대비, %): ('23.11월)47.6 → (12월)47.6 → ('24.1월)47.9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0월)0.4 → (11월)0.3 → (12월)-1.1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11월)2.4 → (12월)2.9 → ('24.1월)2.8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양호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3.10월)4.6 → (11월)6.6 → (12월)6.8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10월)7.6 → (11월)10.1 → (12월)7.4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3.10월)2.9 → (11월)2.9 → (12월)3.0
- 종합PMI: ('23.11월)50.4 → (12월)50.3 → ('24.1월)50.9

일본경제는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

- 광공업생산(전월대비, %): ('23.10월)1.3 → (11월)-0.9 → (12월)1.8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0월)-1.7 → (11월)1.1 → (12월)-2.9
- 종합PMI: ('23.10월)50.5 → (11월)49.6 → (12월)50.0 → ('24.1월)51.5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요 통화의 「대달러 환율」이 상승

- '24.1월말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전월대비 0.03%p 상승한 3.91%를 기록한 가운데, 유로존과 일본 국채(10년) 금리도 각각 0.14%p, 0.12%p 상승한 2.17%, 0.73%를 기록
- '24.1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2.04%, 4.17%, 0.9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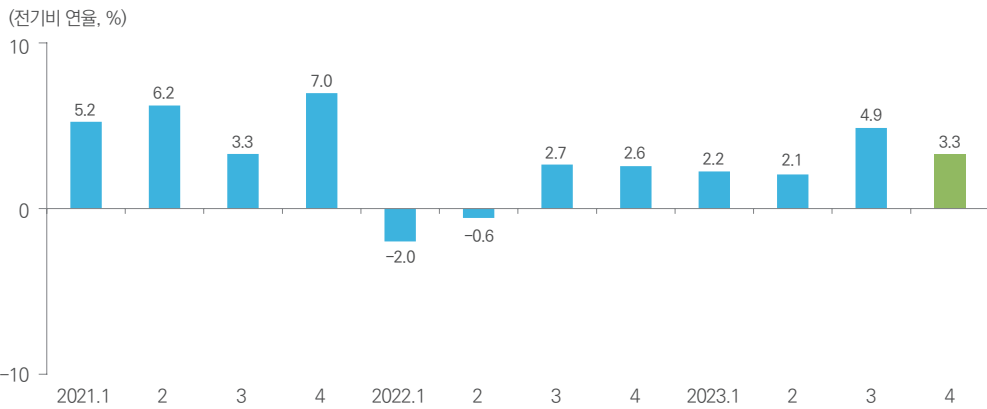
1 미국

미국 경제는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있음

■ '23. 4/4분기 실질GDP 성장률(전기비 연율)은 3.3%로 전분기(4.9%)보다 둔화되었으나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예상치(2.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2023년 연간으로는 2.5% 성장하여 2022년(1.9%)보다 확대된 증가율을 기록

- 실질GDP 성장률(전기비 연율, %): ('23. 2/4)2.1 → (3/4)4.9 → (4/4)3.3
- 개인소비(전기비 연율, %): ('23. 2/4)0.8 → (3/4)3.1 → (4/4)2.8
- 민간투자(전기비 연율, %): ('23. 2/4)5.2 → (3/4)10.0 → (4/4)2.1
- 정부지출(전기비 연율, %): ('23. 2/4)3.3 → (3/4)5.8 → (4/4)3.3

| 그림 1 | 미국의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미 BEA

■ '23.12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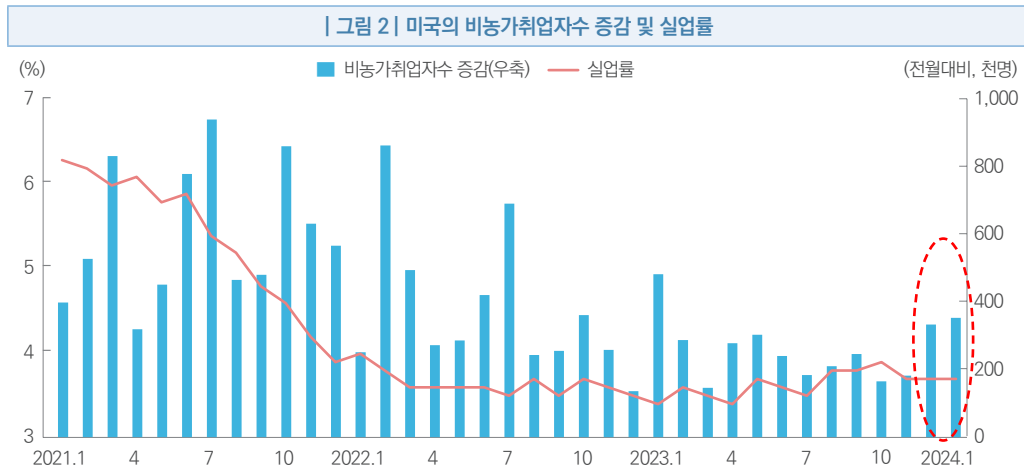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3.10월)-0.8 → (11월)0.0 → (12월)0.1
- 제조업생산(전월대비, %): ('23.10월)-0.9 → (11월)0.3 → (12월)0.1
-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24년 1월 중 49.1로 기준치(50)에 근접하며 전월보다 상승하였고, 비제조업지수도 53.4로 전월보다 상승
- ISM제조업 PMI(기준치 50): ('23.11월)46.6 → (12월)47.1 → ('24.1월)49.1
- ISM비제조업 PMI(기준치 50): ('23.11월)52.5 → (12월)50.5 → ('24.1월)53.4

■ '23.12월 중 소비지표인 「실질개인소비지출」은 내구재소비(1.5%)와 서비스소비(0.3%) 등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 유지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3.10월)0.0 → (11월)0.5 → (12월)0.5
- '24.1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114.8로 기준치(100)을 상회하며 전월에 이어 상승
-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23. 11월)102.0 → (12월)110.7 → ('24.1월)114.8

■ '24.1월 중 노동시장은 고용증가폭은 전월보다 확대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 '24.1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35.3만 명 증가하여 전월(33.3만 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3.7%로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업종별로는 교육·의료업(11.2만 명), 전문·기업서비스(7.4만 명), 소매업(4.5만 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3. 11월)18.2 → (12월)33.3 → ('24.1월)35.3
- 실업률(%): ('23. 11월)3.7 → (12월)3.7 → ('24.1월)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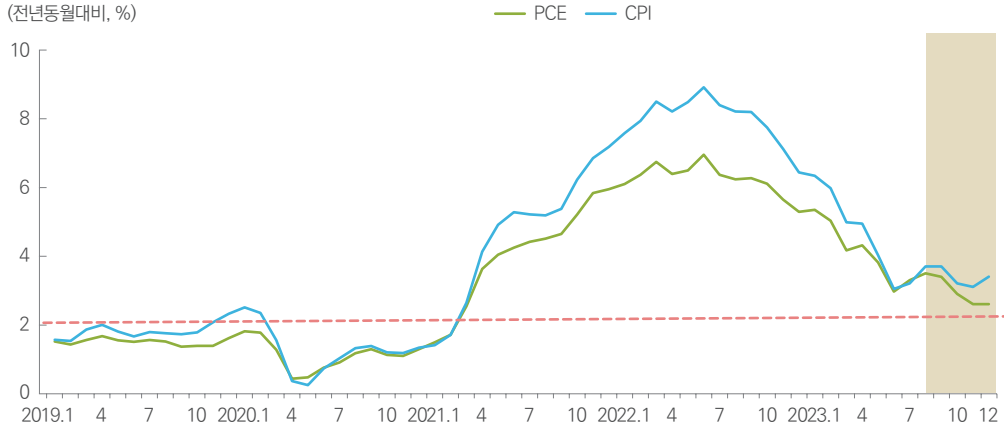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23.12월 중 「PCE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여 전월과 같은 상승 폭을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는 3.4% 상승하여 전월보다 상승 폭이 소폭 확대

- PCE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3.10월)2.9 → (11월)2.6 → (12월)2.6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3.10월)3.2 → (11월)3.1 → (12월)3.4
- 향후 12개월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은 '24년 1월 중 2.9%로 전월에 이어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3. 11월)4.5 → (12월)3.1 → ('24.1월)2.9

| 그림 3 |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24.1월 중 시장금리는 예상보다 견실한 실물지표 흐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연준의 긴축 기조 종료 기대감 등이 상하방 요인으로 혼재한 가운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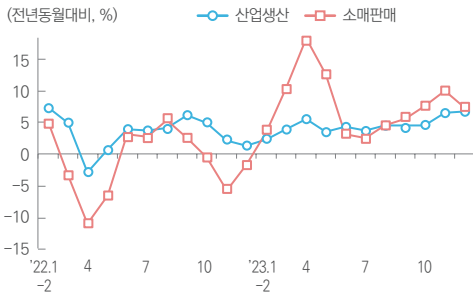
- 장기금리(10년물기준)는 '24. 1월 중 4.06%로 전월대비 4pb 상승하였으나, 단기금리(2년물 기준)는 4.32%로 14bp 하락하여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
-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23.11월)4.50 → (12월)4.02 → ('24.1월)4.06
-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3.11월)4.88 → (12월)4.46 → ('24.1월)4.32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 - 2년물, %p): ('23.9월)-0.38 → (10월)-0.44 → (11월)-0.26
- 미 연준은 '24. 1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현 수준에서 동결(5.25 ~5.50%)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계획대로 지속하기로 결정

2 중국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양호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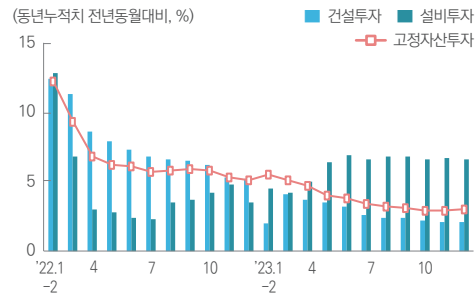
- '23.12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 산업별로는 광업(4.7%), 제조업(7.1%), 전기·가스·수도업(7.3%)에서 모두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3.10월)4.6 → (11월)6.6 → (12월)6.8
- '23.12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4% 증가
 - 소비유형별로는 상품(4.8%)과 외식업(30.0%)에서 모두 증가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10월)7.6 → (11월)10.1 → (12월)7.4
- '23.12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누적치)」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투자부문별로는 건설투자(2.1%)와 설비투자(6.6%)가 모두 증가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3.10월)2.9 → (11월)2.9 → (12월)3.0

| 그림 4 |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추이



자료: CEIC

| 그림 5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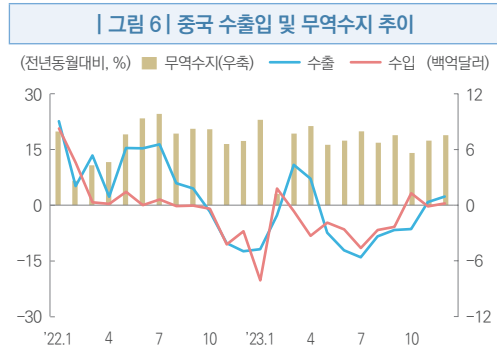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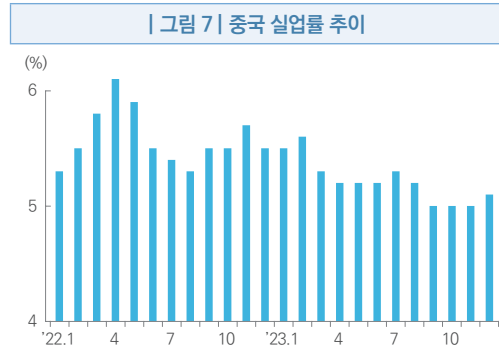
- '23.12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753.4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무역수지(억달러): ('23.10월)561.3 → (11월)694.5 → (12월)753.4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6.6 → (11월)0.7 → (12월)2.3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10월)2.9 → (11월)-0.7 → (12월)0.2

■ '23.12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1%로 집계되었으며, 12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1,24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실업률(%): ('23.10월)5.0 → (11월)5.0 → (12월)5.1
-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만명): ('23.10월)1,109 → (11월)1,180 → (12월)1,244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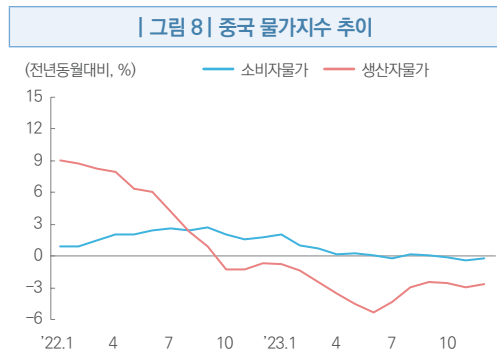
자료: CEIC

■ '23.1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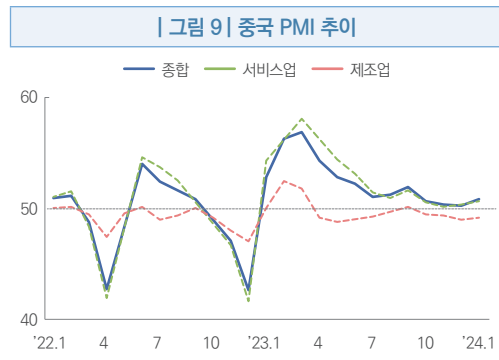
- 식료품의 물가(0.5%)는 상승하였으나 식료품 물가(-3.7%)의 하락이 지속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10월)-0.2 → (11월)-0.5 → (12월)-0.3

■ '24.1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9를 기록

- 종합PMI는 기준선(50.0)을 상회하면서 전월보다 0.6p 상승
- '24.1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49.2, 50.7을 기록
- 종합PMI: ('23.11월)50.4 → (12월)50.3 → ('24.1월)50.9



자료: CEIC



자료: CEIC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물가는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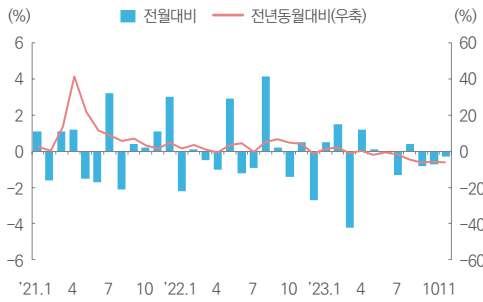
■ '23.11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

- 소비재(1.0%)에서 증가했으나 자본재(-0.8%), 중간재(-0.6%) 등에서 감소
- 국가별로는 독일(-0.7%), 이탈리아(-1.5%)를 중심으로 감소
- 유로지역 산업생산(전월대비, %): ('23.9월)-0.8 → (10월)-0.7 → (11월)-0.3

■ '24.1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47.9로 8개월 연속 50선 하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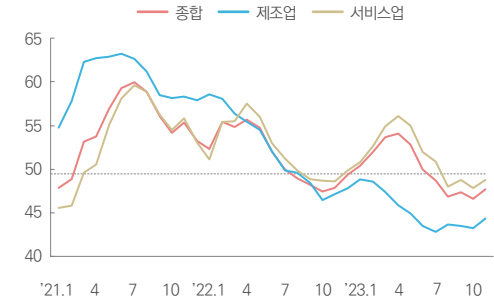
- 제조업 PMI는 46.6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서비스 PMI는 48.4로 하락
- 유로지역 종합PMI(전월대비, %): ('23.11월)47.6 → (12월)47.6 → ('24.1월)47.9
- 유로지역 제조업PMI(전월대비, %): ('23.11월)44.2 → (12월)44.4 → ('24.1월)46.6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전월대비, %): ('23.11월)48.7 → (12월)48.8 → ('24.1월)48.4

| 그림 10 |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 그림 11 |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50 미만이면 경기수축을 의미
자료: Bloomberg

■ '23.12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1.1% 감소

- 소매판매는 온라인 소매판매(-3.7%) 식료품(-1.6%), 비식료품(-1.0%)등을 중심으로 감소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0월)0.4 → (11월)0.3 → (12월)-1.1

■ '24.1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16.1로 증가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23.11월)-17.7 → (12월)-17.8 → ('24.1월)-16.1

I.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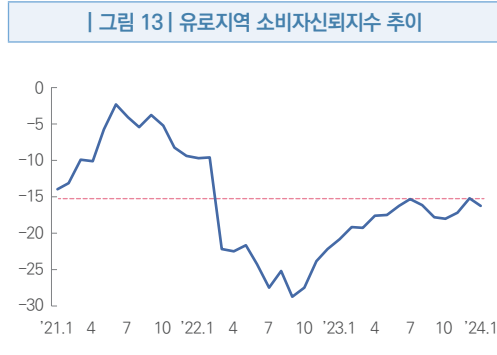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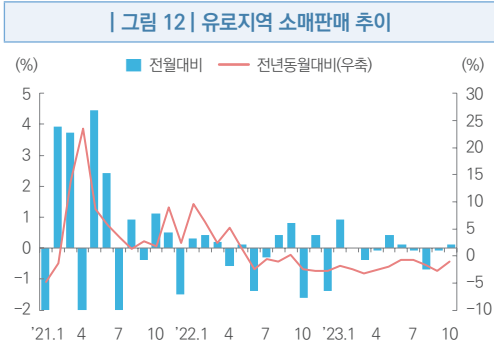
II. 생산·공용·인구

III. 금융·자산

IV. 해외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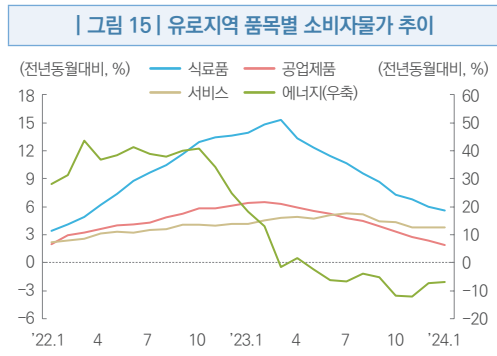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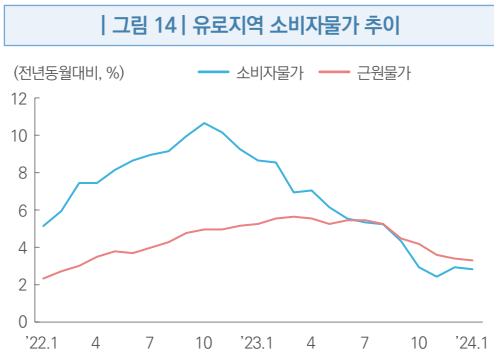
V. 기술경제 동향

VI. 경제 현안



■ '24.1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2.8% 상승

- 에너지 물가하락이 지속되고, 근원물가도 상승세 둔화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11월)2.4 → (12월)2.9 → ('24.1월)2.8
- 유로지역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3.11월)3.6 → (12월)3.4 → ('24.1월)3.3
- 유로지역 에너지(전년동월대비, %): ('23.11월)-11.5 → (12월)-6.7 → ('24.1월)-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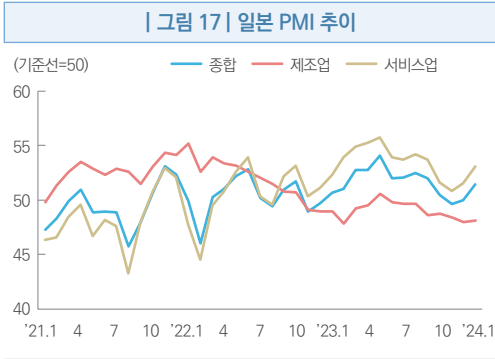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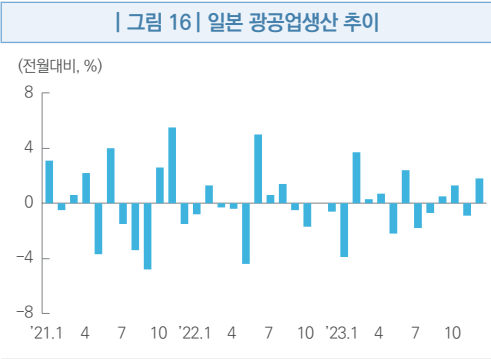
■ '23.12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6.4%

- 10월 청년실업률은 14.4%
- 유로지역 실업률(%): ('23.10월)6.5 → (11월)6.4 → (12월)6.4

4 ▶ 일본

일본경제는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생산 및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

- '23.12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1.8% 증가
 - 일반기계 및 화학 산업의 개선으로 증가 전환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3.10월)1.3 → (11월)-0.9 → (12월)1.8
- '24.1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기준치(50)를 상회하며 개선세를 지속
 - 제조업 PMI는 전월 수준을 지속한 반면 서비스 PMI는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 종합PMI: ('23.10월)50.5 → (11월)49.6 → (12월)50.0 → ('24.1월)51.5
 - 제조업PMI: ('23.10월)48.7 → (11월)48.3 → (12월)47.9 → ('24.1월)48.0
 - 서비스PMI: ('23.10월)51.6 → (11월)50.8 → (12월)51.5 → ('24.1월)53.1



- '23.12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2.9%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2.1% 증가하며 증가세가 둔화됨.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0월)-1.7 → (11월)1.1 → (12월)-2.9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10월)4.1 → (11월)5.4 → (12월)2.1
- '23.12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10월)3.3 → (11월)2.8 → (12월)2.6
 -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3.10월)4.0 → (11월)3.8 → (12월)3.7

I. 지출

II. 생산·고용·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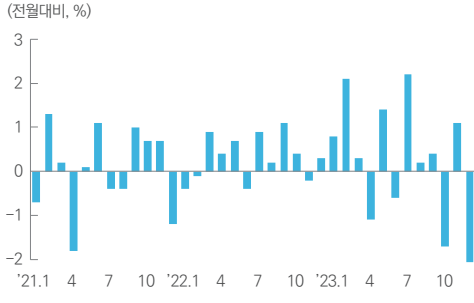
III. 금융·자산

IV. 해외경제 동향

V. 기술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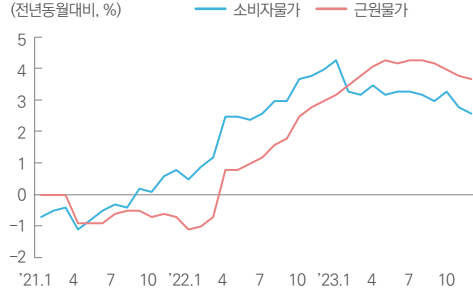
VI. 경제 원안

| 그림 18 |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19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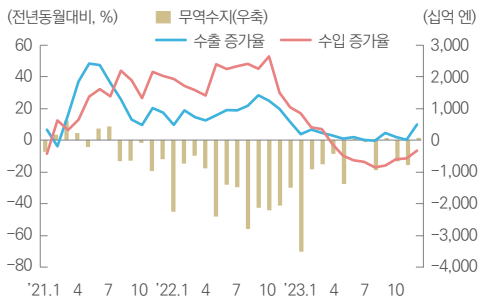
■ '23.12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68.9십억엔 흑자를 기록

- 무역수지는 자동차,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며 흑자 전환
- 무역수지(십억엔): ('23.10월)-667.2 → (11월)-785.2 → (12월)68.9
-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한 반면 수입은 6.9%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0월)1.6 → (11월)-0.2 → (12월)9.7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10월)-12.4 → (11월)-11.8 → (12월)-6.9

■ '24.1월 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46.9엔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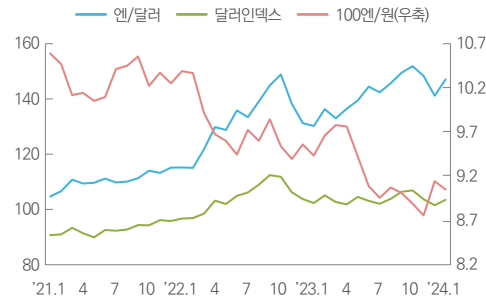
- 엔/달러 환율(월말): ('23.10월)151.7 → (11월)148.2 → (12월)141.0 → ('24.1월)146.9

| 그림 20 |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21 | 일본 엔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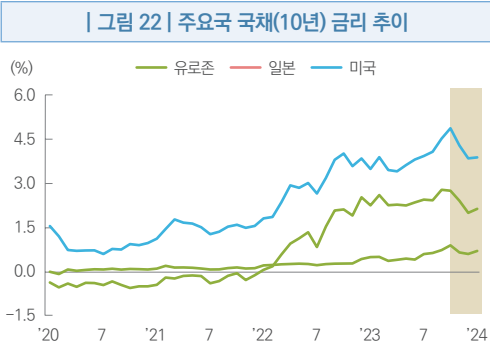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5 글로벌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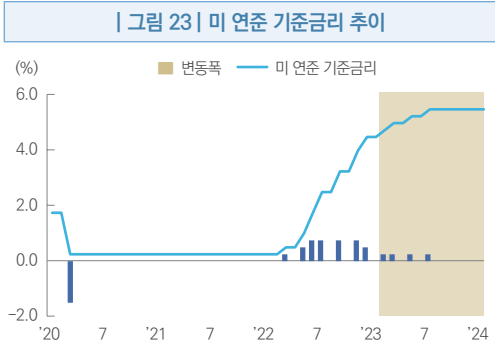
가. 금리

'24.1월 주요국 「국채금리」는 상승

- '24.1월 주요국 국채(10년) 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및 속도 관련 불확실성 부각, 미국 경제 여건의 개선 흐름 등으로 상승
 - '24.1월말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3.91%로 전월말 3.88% 대비 0.03%p 상승
 - '24.1월말 유로존과 일본의 국채(10년) 금리도 각각 전월말 대비 0.14%p, 0.12%p 상승한 2.17%, 0.73%를 기록
- 한편 미 연준은 '23년 7월 기준금리를 5.00~5.25%에서 5.25~5.50%로 인상한 이후 9월, 11월, 12월, '24년 2월까지 4차례 기준금리를 동결
 - 미 연준의 기준금리 5.25~5.50%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Morningstar



자료: Morningstar

I. 지출

II. 생산·고용·인구

III. 금융·자산

IV. 해외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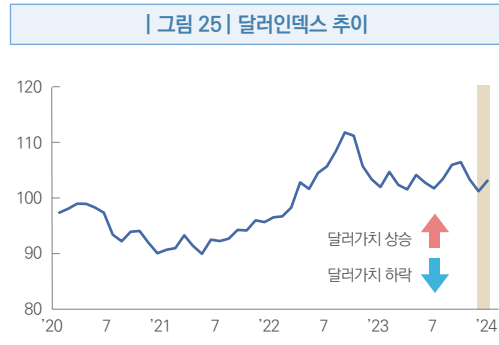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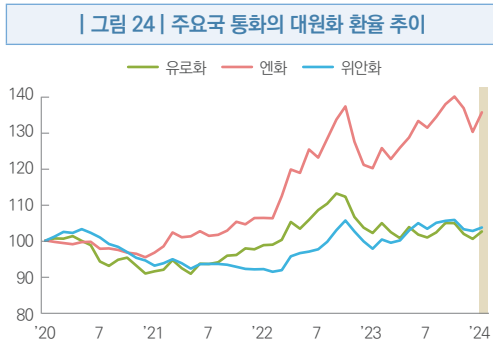
V. 기술경제 동향

VI. 경제 환안

나. 환율

'24.1월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상승

- '24.1월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중동사태 불확실성 지속, 미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 등에 따라 전월말 대비 상승
 - '24.1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2.04%, 4.17%, 0.97% 상승
 - 한편 1월말 기준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년동월 대비로는 각각 0.42%, 12.94%, 6.12% 상승
-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¹⁴⁾는 1월말 기준 전월말 대비 1.92% 상승한 103.3을 기록
 - '24.1월말 달러인덱스는 전년동월 대비로는 1.15% 상승



주: 1) 2020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14)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로 미 연준이 산출해 발표

다.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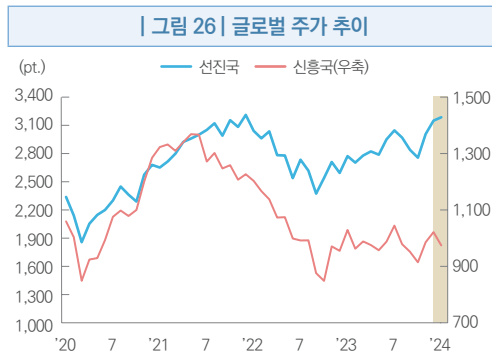
'24.1월 「글로벌 주가」는 선진국 주가는 상승한 반면 신흥국 주가는 하락

- '24.1월 선진국 주가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신흥국 주가는 금융시장의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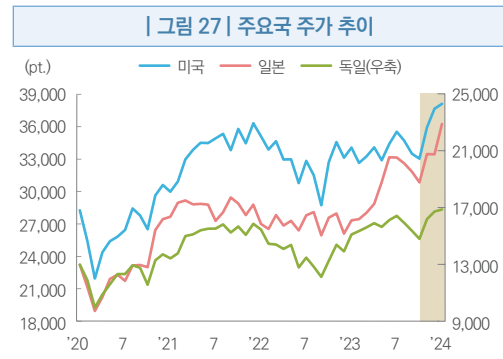
· '24.1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1.14% 상승하였으나, 신흥국 주가는 4.68% 하락

- 한편 '24.1월 미국, 독일, 일본 주가도 상승

· '24.1월말 미국, 독일, 일본의 주가는 전월말 대비 각각 1.22%, 0.91%, 8.43% 상승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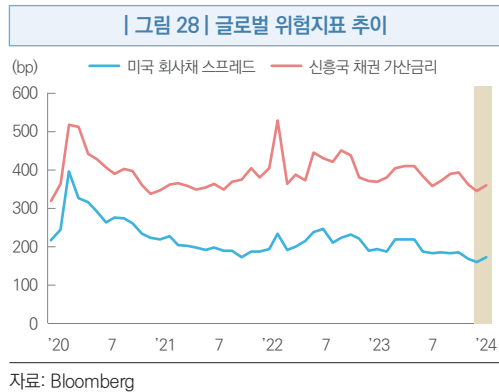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라. 금융위험 지표

'24.1월 「글로벌 금융위험 지표」는 전반적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 상승

- 글로벌 금융위험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¹⁵⁾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¹⁶⁾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상승
 - '24.1월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전월대비 18bp 상승한 364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12bp 상승한 170bp를 기록
-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¹⁷⁾도 소폭 상승
 - '24.1월 VIX지수는 전월대비 0.67p 상승한 13.39를 기록
 - 한편 '24.1월 기준 VIX지수는 '19.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15)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지며 금융시장이 안정화 될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하락

16)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미국의 Baa 등급 10년물 회사채 금리와 국채 10년물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부각되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스프레드가 확대

17)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는 S&P500 지수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증시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지수라고도 함

V

경제동향

기술경제 동향

수소에너지 가치사슬과 탄소중립

“기술경제 동향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소에너지 가치사슬과 탄소중립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 박상욱 교수

1 배경

대기 중 CO₂ 양이 역사상 최고치의 높은 수준에 도달함

-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 중 CO₂의 양은 422ppm('24년 2월 7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¹⁾
- CO₂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실기체가 있지만, 현재 CO₂의 온실효과 전체 기여도가 가장 높음
 - 대표적인 온실기체로는 CO₂, 메탄, 아산화질소, F-gases 등이 있고, CO₂의 경우 단위 질량 당 온실효과 기여도는 가장 낮지만, 대기 중 그 양이 많아서 이산화탄소환산량(CO₂eq, carbon dioxide equivalent) 기준 약 75%의 온실효과 전체 기여도를 가짐²⁾

CO₂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파리 협약을 체결

-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인류 활동으로 발생하는 CO₂의 전체 배출(Net emission)을 2050년까지 'net zero'로 만들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C(혹은 2°C)로 제한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약 195개 국가가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을 맺음

1) NASA(2024), "Global Climate Change vital Sign of the Planet"
 2) Climate Watch, the World resources Institute, OurWorldinData(2020)

2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에너지의 고유한 역할

전환(발전), 수송, 산업 부문에서 CO₂를 줄이기 위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 증대

- 2018년 기준 대한민국 CO₂ 배출 총량은 727.7 Mton에 달하고, 이 중 전환(발전) 부문 269.6 Mton (37%), 산업 부문 260.5 Mton (36%), 수송 부문 98.1 Mton (13%)의 배출량을 보임³⁾

전환(발전) 부문에서의 수소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갖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발생한다는 것임
 -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이 중요한 발전 및 산업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가장 비율이 높은 태양광, 풍력)로 생산된 에너지가 중간 부하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역할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음.
-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기저 부하, 중간 부하, 첨두부하 공급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암모니아 터빈 기술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음

산업 부문에서의 수소에너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

-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에서 철광석(Fe₂O₃)으로부터 순수한 철(Fe)을 생산할 때 일산화탄소(CO)를 환원제로 사용해 왔고, 그 부산물로 CO₂가 대량 발생함. 또한, 환원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응로의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로 CO₂가 추가로 발생함
- 미래에는 친환경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수소환원제철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생산한 전기를 이용한 전기로를 반응 용기로 사용하여 CO₂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음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수송 부문에서의 수소에너지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와 함께 CO₂ 배출을 줄이는 주요 방안 중 하나

- 화석연료 기반의 운송 수단에서 CO₂의 배출은 승용차 40%, 트럭 34%, 비행기 11%, 선박 11%, 기차 4%의 비율을 보임⁴⁾
-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할 수송 기술로는 크게 수소 기반(예: 수소연료전지, 탄소중립연료)의 운송 수단과 배터리 기반의 운송 수단이 있으며, 두 기술 각각 다른 장점이 있음
 - 수소에너지는 장기간 고용량의 에너지 저장과 공급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덜 영향을 받아 장기간 고용량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중량(Heavy-duty) 운송 수단(예 : 트럭, 비행기, 선박, 기차 등)에 적합
 -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저용량의 에너지 저장과 공급에 적합하여 경량(Light-duty) 운송 수단(예: 승용차)에 적합

탄소중립을 위하여 수소에너지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 수소는 탄소-free 원료로서 전기 및 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비료 합성(예: NH₃), 석유화학 정제, 수소환원제철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단위 질량당 높은 에너지 저장 특성을 지니므로 장기간, 고용량 에너지 저장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기인한 에너지 수요 공급 불균형 시 잉여 전기를 수소의 화학에너지로 저장할 수 있음
- 수소는 그 자체로 물질이기 때문에 전력망(그리드)을 따라서 공급되는 전기와 달리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로 전 세계로 수월하게 운송이 가능하며, 기존 천연가스 운송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2019)

3 수소에너지의 가치사슬 -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수소 생산 부문에서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발전이 필요

■ 현재의 수소 생산 방식은 CO₂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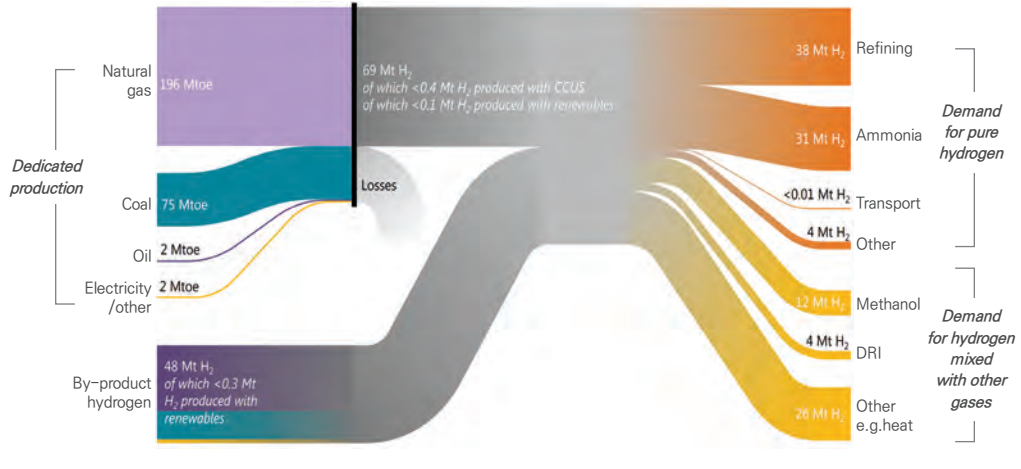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약 120 Mton의 수소가 생산되었고, 이 중 99%가 넘는 수소가 화석연료(예,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로부터 생산됨⁵⁾
- 특히 약 42%의 수소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메탄 개질 방식의 경우, 수소 1톤 생산 시 약 10톤의 CO₂를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렇게 CO₂를 배출하며 생산되는 수소를 그레이(Gray) 수소라고 부름
- 현재 그레이 수소의 생산 과정에서 연간 약 830 Mton의 CO₂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세계 CO₂ 배출량의 약 2.3%에 달하는 많은 양임.

■ Net zero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이 필요

- 블루수소: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 특히 습식 메탄 개질 반응에서 발생한 CO₂를 포집하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 그린수소: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한 CO₂-free 전기를 이용한 수전해 기술로 물을 분해해서 생산하는 방식
- 청록수소: 메탄 열분해를 통해서 CO₂의 배출 없이 탄소와 수소를 만드는 방식
- 레드, 핑크, 퍼플 수소: 저탄소 발전원인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
- 우리나라는 2023년 11월에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발표함으로써 수소 생산, 수입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연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시행할 계획

5)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9), "The Future of Hydrogen"

| 그림 1 | 2018년 기준 수소 생산 및 활용 가치 사슬⁶⁾



수소 저장 기술은 크게 물리적 수소 저장과 재료적 수소 저장으로 구분됨

- 물리적 수소 저장**은 온도와 압력이라는 물리적인 조건을 컨트롤 함으로써 수소를 저장함
 - 고압 수소는 상온 근처에서 약 900 기압 이하로 수소 기체를 압축하여 저장하는 기술
 - 극저온 고압수소는 압력을 고압으로 유지하되 온도를 약 -240 ~ -123℃ 까지 낮추어 수소를 저장함
 - 액화수소는 압력은 1~4 기압으로 낮게 유지하되 온도를 수소가 액화되는 -253℃ 이하로 낮추어 수소를 보관
- 재료적 수소 저장**은 물질의 화학적 성분에 수소 원자가 포함된 형태나 특수 물질에 수소를 흡수, 흡착시켜서 저장하는 기술
 - 대표적으로 개미산(HCO₂H), 액상 유기 수소 운반체(LOHC), 메탄올(CH₃OH), 암모니아(NH₃) 등이 수소의 재료적 저장 매개체에 해당함.
 - 특히 액상 유기 수소 운반체와 암모니아가 대량의 친환경 수소를 저장 및 운송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6)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9), "The Future of Hydrogen"

수소 운송 기술은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과 연계되어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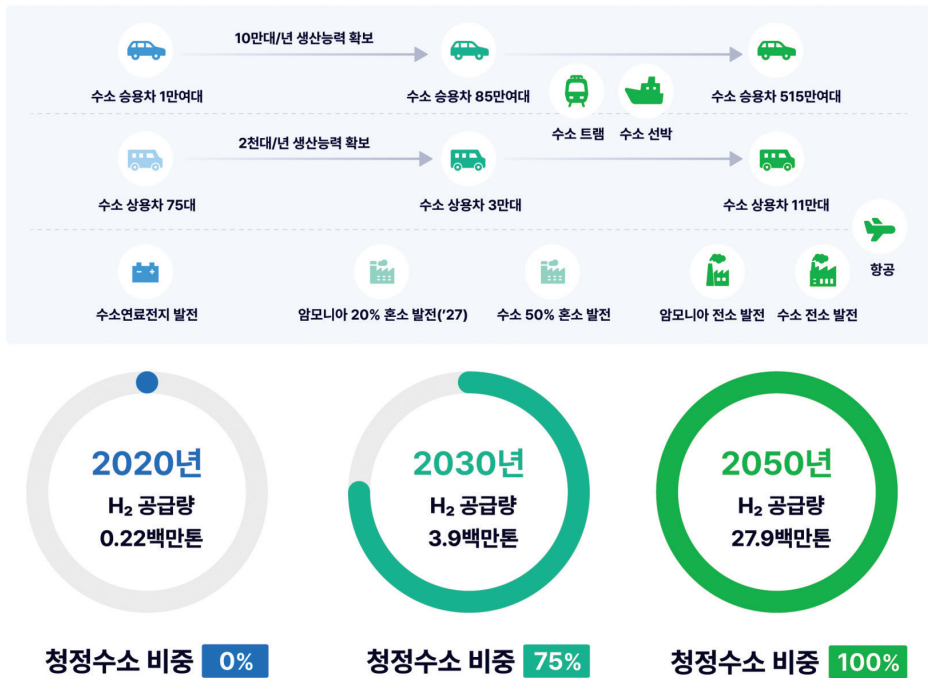
- 고압 기체 수소를 Type 1~4의 특수 수소 저장 용기에 저장하여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수소를 운송. 이는 하루에 1톤 이하의 수소가 필요한 소규모 수소 운반에 적합함
- 극저온의 액화 수소는 고압 기체 수소보다 3~5배 더 많은 수소를 저장 및 운송할 수 있음. 하지만 극저온의 액화 수소가 끓어 넘치는 'Boil-off'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함. 액화 수소는 탱크 트럭 혹은 액화 수소 운반선으로 운송이 가능하며, 일본이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액화 수소 운반선 장거리 실증에 성공함
- 대규모 수소 사회가 도래하고, 현재 천연가스를 사용하듯 수소를 사용할 미래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대량으로 수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임. 하지만 파이프라인의 취성 문제, 수소 누출, 수소 압축기 개발 등의 해결과제가 남아 있음

수소 활용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 현재 수소의 활용 분야는 석유화학, 비료, 열 공급 및 기타 원료, 메탄올 생산 등이 있음
 - 2018년 기준 세계 수소 생산량은 약 120 Mton이고, 주로 수소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석유화학 정제 공정에 약 33%, 비료생산에 약 27%, 열 공급 및 기타 원료로 약 26%, 메탄올 생산에 약 10% 임⁷⁾
- 미래 수소의 활용 분야는 오늘날보다 확대될 전망
 - 컨트롤 가능한 수소/암모니아 터빈,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서 대량의 수소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 고에너지 밀도를 필요로 하거나, 장시간/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비행기, 선박, 기차, 트럭 등의 모빌리티의 연료로 수소에너지가 사용. 이때 수소 연료전지와 탄소중립연료(e-Fuel)의 형태로 수소가 소비될 것으로 전망
 - 비료(예: 암모니아), 철, 시멘트, 플라스틱, 화학 약품 생산 등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산업 용품들을 만드는데 수소가 반드시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전환(발전), 산업, 수송 분야에서 수소에너지만의 고유한 역할로 인해서 약 2,800만 톤 이상의 수소가 2050년에 소비될 것으로 예측함

7)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9), "The Future of Hydrogen"

| 그림 2 | 우리나라 수소 활용 계획⁸⁾



8) 산업자원통상부(2021),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VI

경제동향

경제 현안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경제 현안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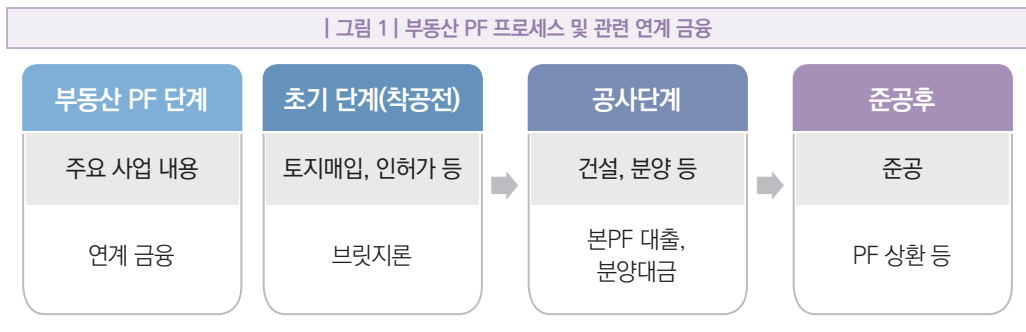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박승호 분석관(6788-4671)

1 검토 배경 및 부동산 PF 대출 현황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은 금융사가 부동산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 전반을 의미

- 부동산 PF는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
 - 부동산 PF의 개발단계는 착공전 단계, 공사단계, 착공후 단계로 구분되며 착공전 단계는 브릿지론¹⁾, 공사단계는 본PF 대출 등의 금융이 연계
- 한편 일반적 기업금융은 기업의 신용과 담보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등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장의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 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져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제1금융권의 낮은 이자의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 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차입금을 브릿지론이라 함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 부동산 개발 비용 증가 등으로 저축은행, 증권사를 포함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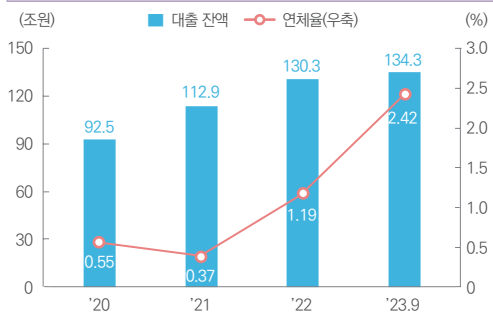
■ 부동산시장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 PF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건설비용 상승과 분양시장 침체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점증

- 2023년 9월 부동산 PF 대출액은 134조원으로 2017년(66조원) 대비 103% 증가

■ 증권업,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도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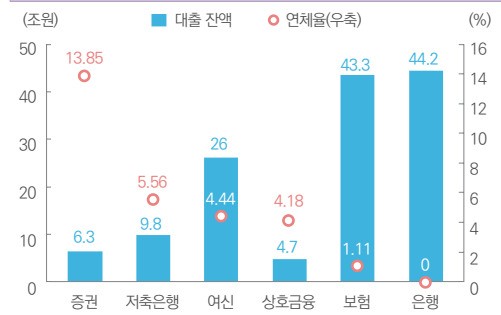
-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0.55%에서 2023년 9월 2.42%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 9월 기준 금융기관별 연체율은 저축은행 5.56%, 증권업 13.85%, 여신 4.44%, 상호금융 4.18%를 기록하며 4% 수준을 상회
- 반면 은행, 보험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3년 9월 기준 각각 0.0%, 1.11%로 안정적 상황

| 그림 2 |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율 추이



주: 1) 새마을금고 제외(새마을금고는 여타 금융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며 2023.9월 자료 미발표)
 2) 2023년 9월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그림 3 | 금융업별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율



주: 1) 새마을금고 제외
 2) 2023년 9월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 뿐 아니라 부동산, 건설투자 등 실물경제와 연계성이 높아 위험요인 및 향후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

■ 최근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고 있어 부동산 PF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

- 손실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 비중이 높은 점도 우려 요인

■ 또한 경기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건설기업 파산 가능성,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부각될 경우 실물경제의 충격이 가중될 우려

- 부동산 PF의 리스크 확산시 도미노 효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2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요인

가. 부동산 PF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비중

우리나라 부동산 PF 시행사는 자기자본 비중이 낮아 대내외리스크에 취약하고 사업 차질 발생시 시행사의 책임 부담이 미흡

- 우리나라 부동산 PF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5~10% 내외의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금융회사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충당
 - 부동산 PF 시행사 설립 관련 자본금 요건은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수준
 - 한편 2008~2010년 부동산 PF 부실로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었던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시행사 자기자본 20% 이상' 대출규제 적용 중
- 이에 부동산시장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업비 및 채무부담 증가에 취약
 -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금리상승시 이자비용 증가로 사업의 수익성이 직접적으로 악화되는 구조
 - 또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사업비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분양대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분양이 취소될 경우 사업중단 위험이 높고, 공사비용 상승분을 분양가격에 전가하기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 그림 4 |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PF 자금조달 구조 비교

부동산 PF 단계		초기 단계(착공전)		공사단계	
주요 사업 내용		토지매입, 인허가 등		건설, 분양	
자본조달 구조	한국	자기 자본	브릿지론 (증권/저축은행 등)	본PF 대출 + 분양시 분양대금 (사업비 + 브릿지론 상환)	
	미국	자기자본/투자금	대출	건설자금 대출 (분양시 분양대금 사업비로 미사용)	

주: 점선은 대출 등 외부자금 의존도를 의미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등을 활용해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중이 20~30% 수준이며 선분양시 분양대금을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²⁾

■ 미국 등 주요국의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우리나라 대비 높은 상황

- 미국 등 주요국의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시행사 및 투자자가 총사업비의 20~30%를 부담하는 구조로 토지매입비용은 자기자본 등을 주로 활용하며 건설자금만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특징

■ 또한 분양대금을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아 부동산 PF 사업의 진행이 부동산 가격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

- 미국 등은 분양대금(계약금)이 사업비로 활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3기관에 예치되어 대출기관이 건물에 대한 담보권을 보장받는 구조

나. 부동산 PF 대출 및 부실 규모 과소평가 위험

초기 부동산 PF 대출이 건설 및 부동산업 등의 일반대출로 분류³⁾ 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PF 관련 잠재적 위험을 축소할 우려

■ 초기 부동산 PF 대출(브릿지론)은 담보가치가 대출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PF 사업을 위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담보대출(토지담보대출 등)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⁴⁾

- 부동산 PF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⁵⁾됨에 따라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 등)을 활용하는 상황

■ 일반담보대출로 분류된 브릿지론의 경우 총당금 적립률이 부동산 PF 대출 대비 낮고 규제 부담도 낮은 상황

-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총당금이 적립되나,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연체가 없더라도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에도 부실자산 분류 가능

■ 한편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브릿지론 및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분류기준 및 총당금 적립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도 PF 수준으로 총당금 적립 강화 지도('24.1)

2) 이보미(2023), "우리나라 부동산 PF 구조의 문제점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3) 일반대출로 분류되는 경우 여신한도, 총당금 적립 등에서 규제 부담이 경감

4) 박수연외(2023), "[PF브릿지론 점검] 부실사례와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한 저축은행 부동산금융 리스크 점검" 한국신용평가

5)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부동산 PF 20% 이내로 규제하며 건설업, 부동산업, PF대출 비중은 총여신의 50% 이내로 관리

| 표 1 | 저축은행 법정 총당금 적립률 비교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부동산 PF 대출	2%, 1년 경과시 3%	10%	30%	75%	100%
일반담보대출로 분류된 브릿지론	0.85%	7%	20%	50%	100%

자료: 한국신용평가

부동산 PF 대출을 건설 및 부동산업 등 관련 대출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건설 및 부동산업의 대출 규모 및 부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경우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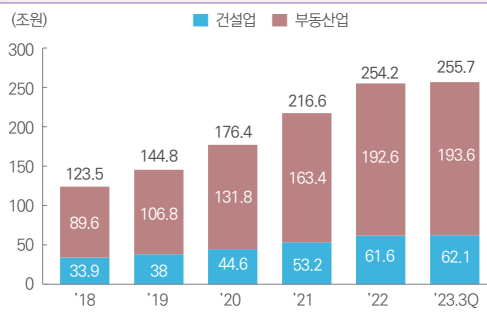
■ 2018년말 이후 비은행 금융기관⁶⁾의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은 123.5조원에서 2023년 9월 255.7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

-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업 대출은 2018년 89.6조원에서 2023년 9월 기준 193.6조원으로 116% 증가
-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설업 대출은 동기간 33.9조원에서 62.1조원으로 83% 증가

■ 2022년말 이후 비금융 금융기관의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부실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

-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2022년말 2.0%에서 2023년 9월 5.5%로 상승한 가운데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⁷⁾은 3.1%에서 6.0%로 상승
-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설업 대출 관련 연체율은 동기간 1.7%에서 4.0%로 상승하였으며,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7%에서 7.3%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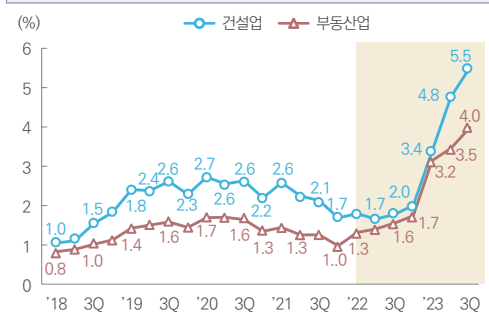
| 그림 5 | 비은행 금융기관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추이



주: 비은행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 금융회사 합산 기준

자료: 한국은행

| 그림 6 | 비은행 금융기관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주: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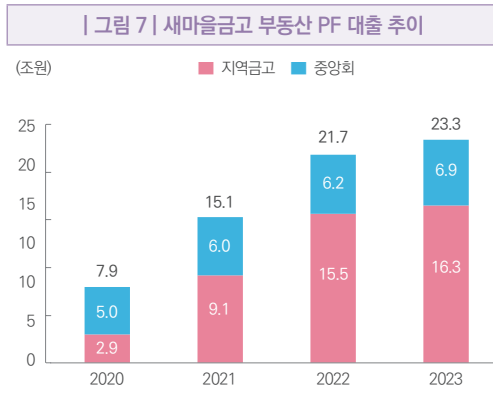
6) 비은행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합산 기준

7) 총여신에 대한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을 나타내며, 고정이하여신은 금융기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할 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여신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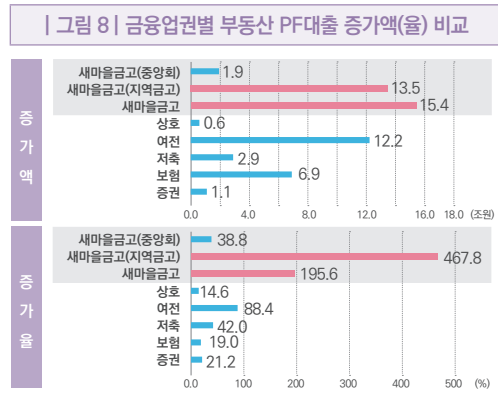
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리스크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기관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

-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⁸⁾은 지방금고를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0년말 7.9조원에서 2023년 2분기 23.3조원으로 증가
 -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여타 금융기관 대비 낮은 대응으로 부동산 PF 대출 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난 상황
-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총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2023년 2분기 15.4조원, 새마을금고 지역금고는 13.5조원 증가하여 상호금융 0.6조원, 저축은행 2.9조원, 증권 1.1조원 등 대비 큰 폭의 증가세 기록
 - 증가율 기준으로도 새마을금고는 2020년 대비 2023년 2분기 195.6% 증가하였으며, 새마을금고 중 지역금고는 467.8% 증가
 - 반면 상호금융은 14.6%, 저축은행 42.0%, 보험 19.0%, 증권 21.2% 증가



주: 2023년 2분기 기준
자료: 새마을금고



주: 2020년말 대비 2023년 2분기
자료: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연체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금융건전성 우려가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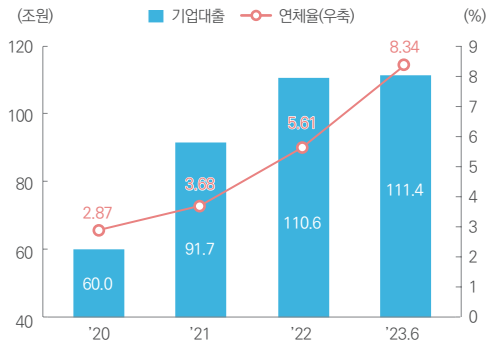
- 기업대출이 2013년 2.7조원에서 2023. 2분기 111.4조원으로 41.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60.0조원) 이후 85.6% 증가
 - 새마을금고 총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4%에서 2020년 41.8%, 2023년 2분기 56.7%로 상승

8) 부동산 PF 사업 방식 중 하나인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포함

■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0년 2.1%에서 2023년 6월말 5.41% 상승한 가운데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금융건전성 우려가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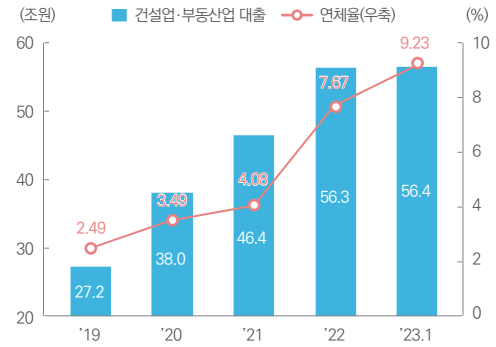
• 기업대출 연체율이 2020년말 2.87%에서 2023년 6월 기준 8.34%로 2.5배 수준으로 상승

| 그림 9 |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규모 및 연체율 추이



주: 연도(월)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그림 10 | 새마을금고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규모 및 연체율 추이



주: 연도(월)말 기준
자료: 한국신용평가(관련된 최근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나 미제출)

특히 기업대출의 50% 이상이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이며 초기 부동산 PF대출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여건 악화시 추가적 부실 우려

■ 2022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액 110.6조원 중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액은 56.3조원이며, 기업대출액 중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50.9%

■ 2023년 1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은 56.4조원이며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앞서 언급한 기업대출 연체율 대비 높은 수준

• 새마을금고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의 연체율은 2019년말 2.40%에서 2022년말 7.67%, 2023년 1월 9.23% 수준으로 상승

※ 한국신용평가 잠정치 기준 2023년 6월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12% 내외⁹⁾

9) 김예일외(2023), "새마을금고 부동산PF 연체율 상승이 증권, 저축은행 부동산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모니터링 요인", KIS Special Report, 한국신용평가

한편 재무건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기관의 차이로 부동산 PF 대출 및 부실 등이 통합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현재 별도로 관리
 -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은 행정안전부 내 지역사회상품권과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지역 금융지원과 총인원 14명 중 9명(민간전문가 2인 포함),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7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
 -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2024년 2월 5일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등 감독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향후 새마을금고의 관리부실, 재무건전성 우려와 맞물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확산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BOX 3]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부실 관련 정보 공개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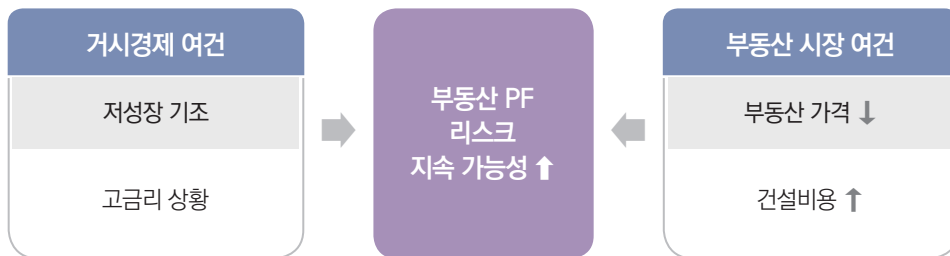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는 2023년말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23년 3분기 기준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규모 및 연체율을 집계하고 발표하였으나, 새마을금고는 제외
 - 반면 행정안전부는 자료보안 등을 이유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권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부동산 PF 대출 규모 및 연체율 자료를 공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 ※ 참고로 새마을금고는 2020~2023년 2분기까지 금융업권 중 가장 가파른 부동산 PF 대출 증가액,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또한 부동산 PF 대출 규제와 관련이 있는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규모 및 부실 관련 통계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자료는 제외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규모 및 연체율, 부동산 PF 대출 분류 기준 등과 관련된 자료 미공개
 - 한편 앞서 분석한 비금융권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규모 및 연체율 데이터에서도 새마을금고 자료는 제외
- 새마을금고는 자산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타 모든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 정보공개, 규제의무 등을 적용받을 필요가 있음

3 ▶ 향후 방향성 및 시사점

부동산시장 및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는 어려울 전망

-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고금리 여건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
 -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한 가운데 내수증가율은 20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4.0%에서 4분기 -0.2%로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2021년 연평균 1.4%에서 2022년 3.2%, 2023년 3.6%로 상승하였으며 2024년 1월 3.3% 내외에서 등락 양상을 보이는 상황
-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건설비용도 상승하고 있어 기존 부동산 PF의 사업성 회복이 어려운 상황
 - 수도권 주택가격이 2022년 8월~2023년 12월 기간 13.0% 하락하는 등 전반적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 건설경기의 본격적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
 - 건설공사비가 2023년 11월 기준 2020년말 대비 25.9% 상승하였으며 2020년 이후 연평균 8.0% 상승

| 그림 11 | 부동산 PF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뿐 아니라 투자심리, 고용 등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경기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건설기업 파산 가능성,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부각될 경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부동산 PF 부실 확대에 의한 금융 및 실물 부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

또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

-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정보공개 수준을 여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관리·감독의 전문성 및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률안¹⁰⁾이 심사 중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본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PF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초기 부동산 PF 대출 등에 대한 분류기준 및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

-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중 상향, 투자자금 유입 확대를 통해 부동산 PF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또한 담보가치, 개발이익 등에 대한 합리적 평가에 기반하는 부동산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 여건을 개선할 필요
-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토지담보대출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동산 PF와 동일한 성격의 대출에 대한 분류기준을 강화해 부동산 PF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분류기준, 부실 인식 기준,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등12인, 의안번호 2123237, 2023.7.13.)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4년 2월호 통권 제41호

발행일 2024년 2월 23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5-002038-07
ISSN	2950-922X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